



이달의 포커스 뉴스

미·중무역전쟁 및 코로나19로 인한 GVC 변화 영향

- 향후 중국 시장 회복 기대되나 新 GVC체제 편입을 위한 준비 시작해야

2P

[연말특집] 이 또한 지나가리라

- 김유호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한 **생생 에피소드!**

40P

베트남 해외시장뉴스	2
월간 뉴스 동향	14
건설·프로젝트 동향	22
<금융> 2020년 베트남 금융시장 동향 .. 송현우 전략기획부장	26
<기업법> 개정('21년 시행)기업법 주요 내용 .. 최성도 변호사	28
<세무> 영업개시단계 필요절차 및 유의사항 ... 조성룡 회계사	34
<노무> 베트남 노동법상 징계 절차 최지웅 변호사	37
<법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김유호 대표	40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꽝남성>	43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50
아세안지역 거시동향 지표	54
공지사항 및 사업안내	55





미·중 무역전쟁 및 코로나 19로 인한 GVC 변화요구와 베트남 내 한국·글로벌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

- 한국, 글로벌 기업의 중국 원부자재, 완제품 거래 의존도 여전히 높아 -
- 향후 중국 시장 회복 기대되나 新 GVC체제 편입을 위한 준비 시작해야 -

지난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여 국제무역질서에 편입되자 전세계 기업들은 비용 절감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생산설비를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현지 아웃소싱을 늘리는 등 글로벌 생산 분업화를 확대하며 본격적인 중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체인(GVC) 시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2018년 초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과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는 기존 중국 중심의 ‘편중된 GVC 체제’의 리스크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다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 친 외국인기업 정책 등 우수한 경영 환경,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가장 유망한 ‘Post China’ 국가로 부상하고 있으며, 실제 15,000개 이상의 외국인 투자 제조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베트남 제 1 투자국이자 제조업 최대 투자국인 한국의 경우, 향후 베트남을 활용한 글로벌밸류체인 선도국으로써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KOTRA는 이번 미·중무역전쟁과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경영환경 및 기존 GVC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및 코카콜라, 인텔, 유니에버 등 글로벌 기업 9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진출 목적은 한국기업들은 원청기업 협력사 진출 및 저임금 활용을 위한 가격 경쟁력 확보 목적이(50%), 글로벌 기업은 현지 유통, 서비스 진출 목적이(31.7%)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기업은 납품을 위한 부품을 제조하는 비율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글로벌 기업의 73.5%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베트남에서의 원부자재 조달비율은 한국기업은 본국을 제외한 현지 및 해외 조달은 25% 미만, 글로벌 기업은 25~50%로 특히, 한국기업들의 원부자재 해외 의존도가 글로벌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 및 코로나 19 사태 이후 현재까지 가장 많은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이었으며 중국 내 기업과의 원부자재, 완제품 거래 비율(의존율)은 한국기업의 약 40%는 최소 10~30% 이상이 중국산을 수입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은 약 65%가 최소 10~30% 이상 수입하는 등 중국 의존도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기업의 경우, 본국으로부터 수입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베트남 현지에서 원자재 및 2차 가공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과의 지속거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기업의 54.5%, 글로벌 기업의 22.4%가 거래를 유지하길 희망하였다. 중국에 대한 원부자재 의존도가 더 낮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공급선 유지를 더 희망하는 이유는 그만큼 원부자재 공급처가 한국 및 중국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GVC 개편 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기업, 글로벌 기업 모두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답변(43.2%/42.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기업은 '사업축소'를 글로벌 기업은 '대체조달 및 공급선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답하였다.

즉, 현 상황에 대해 한국기업은 무리한 공급망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중국 및 베트남을 축으로 한 기존 GVC를 활용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GVC 개편을 위한 준비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 좀 더 미온적이었다.

한국 제조 산업 특성상 최대 공급처인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바로 축소하기엔 한계가 있으나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 수출을 위해서라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중남미 등 공급선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특히, 新 GVC 체제 편입에 있어 베트남의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원료 및 1차 가공부품의 해외 수입 비율을 줄이고 베트남 현지에서 조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물론, 이를 위해 베트남 정부 및 현지 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지가 필요하며 한국기업들 역시 기술이전 및 적극적인 투자로 현지 기업들과의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 페이지부터 설문조사 결과 요약 내용입니다.>



□ 설문조사 개요

- 기간 및 방식 : 2020.10.13(화)~11.02(월),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관 : KOTRA 하노이 무역관
- 설문목적 : 미·중 무역전쟁 및 코로나 19의 글로벌 확산으로 GVC 재편 수요 증대, 최근 **Post China**로 각광 받고 있는 **베트남 진출 글로벌 한국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한 향후 GVC 대응 방안 모색
- 설문조사 참여기업 유형

응답기업 수		중국 사업장 운영(한국기업)		중국 사업장 운영(글로벌기업)			
한국 기업	글로벌기업	유	무	유	무		
44개사	49개사	18	26	49	0		
법인 형태		생산법인		유통법인		서비스 법인	
한국기업		32		2		10	
글로벌 기업		48		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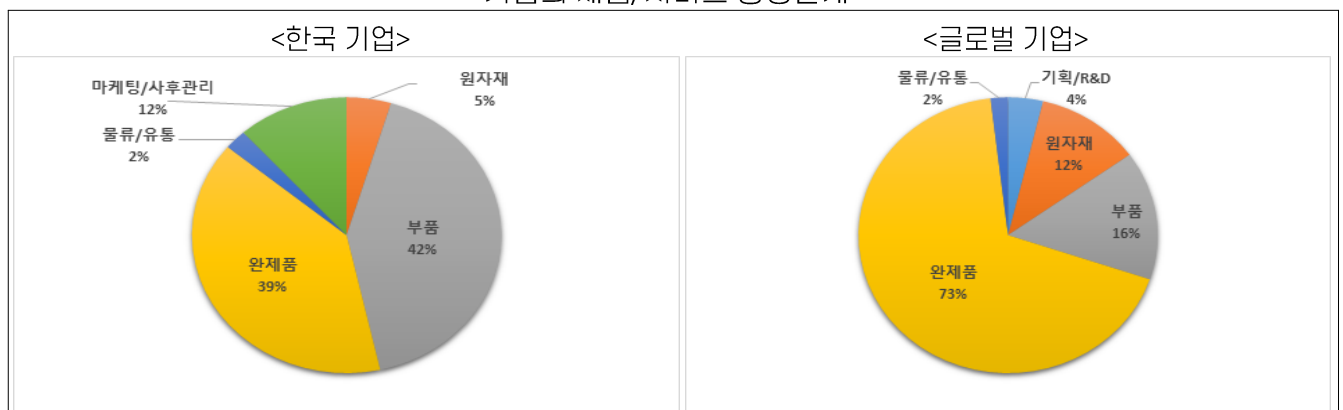
□ 설문결과 요약

○ 베트남 진출목적 및 제품/서비스 공정단계

베트남 진출 한국 및 글로벌 기업의 진출 목적에 있어 한국기업은 원청기업 협력사 진출 및 저임금 활용을 위한 가격 경쟁력 확보 목적이 50%, 글로벌 기업은 현지 유통, 서비스 진출이 31.7%를 차지하며 진출 목적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완제품 생산 비율이 73.5%를 기록하는 등 높았으며 대부분 현지 판매 및 제 3국 수출로 연계되나, 한국 기업의 경우 완제품(39.5%) 보다 부품(41.9%) 생산 비율이 높으며, 원청기업 납품을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 기업의 제품/서비스 공정단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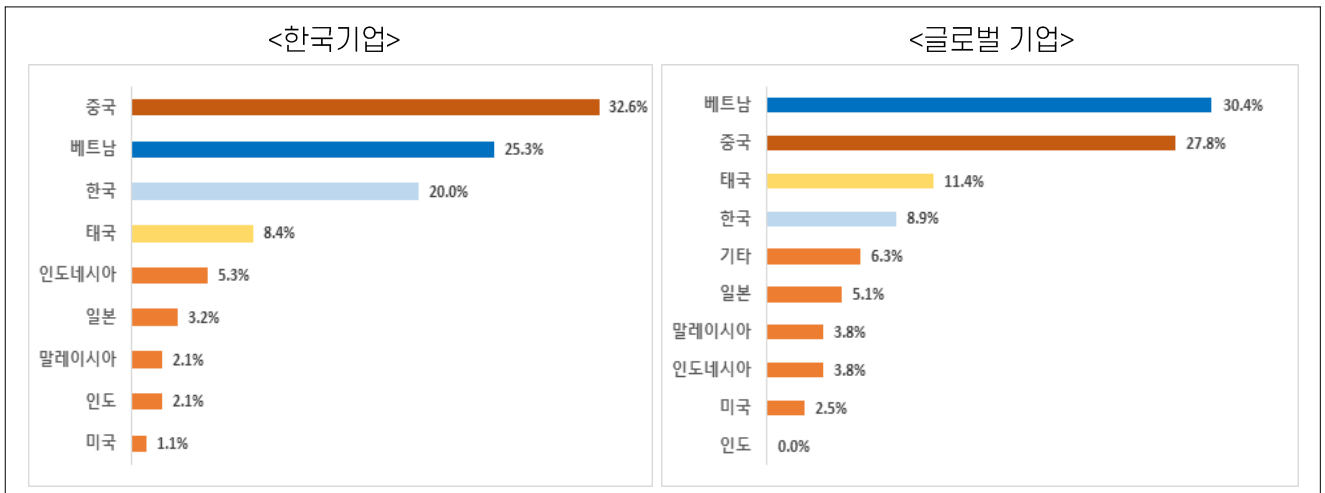
○ 베트남 사업장 경영현황

설문 참여 기업 중 한국기업의 52.3%, 글로벌 기업의 61.2%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주요 매출 감소 전망 요인으로 한국기업 및 글로벌 기업 동일하게 수출감소 및 현지 내수 위축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원부자재 조달은 한국기업은 본국으로부터 75%이상 수입하거나 현지 및 해외 조달은 25% 미만으로 수입한다는 답변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글로벌 기업의 경우, 해외 조달 비율 50~75% 이상 및 현지 조달 비율 25~50% 구간에서 가장 높은 답변 비율을 보였다.

향후 1년 내 원부자재/중간재(부품) 신규 및 추가 구입을 희망하는 국가 순위에서는 한국기업 및 글로벌 기업 모두 중국, 베트남으로부터의 구입 희망 비율이 58.1%, 56.2%로 높았으며, 가격경쟁력 유지 및 적합한 품질, 기술력 관리 목적이라 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 향후 원자재/중간재(부품) 구입 희망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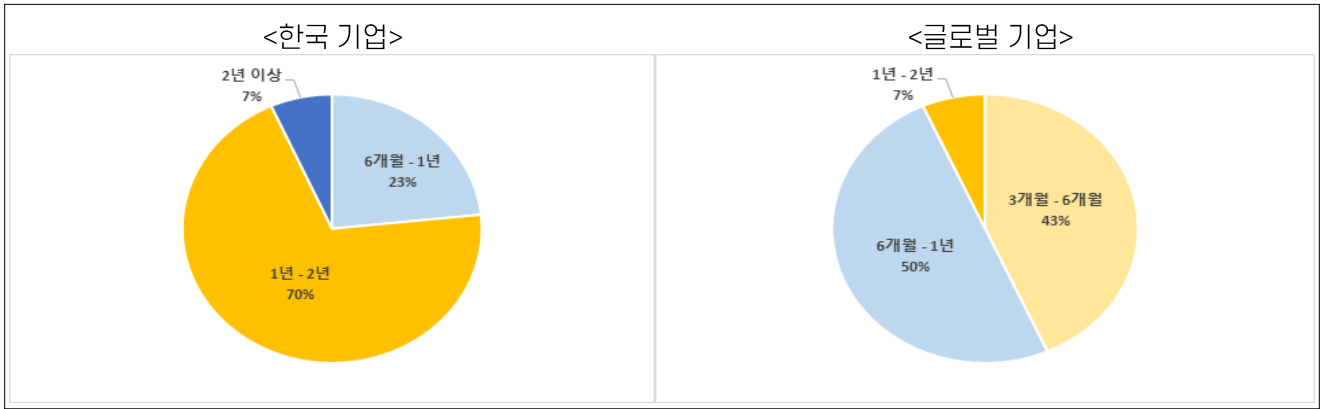
○ 미·중 무역전쟁 및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경영환경 영향

본사 경영현황 및 실적 변화에 대해 한국기업 및 글로벌 기업 중 60% 이상의 기업 본사 실적이 나빠진 상황이며, 매출 감소 비율은 10~30%대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 비율(45.2%, 50.0%)이 각각 가장 높았다.

현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 지속시기에 대해서는 한국기업은 1~2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답변이 70.0%로 가장 많았으며, 글로벌 기업은 6개월~1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50.0%, 3개월~6개월 지속 43.3% 등 한국기업 보다는 시장 회복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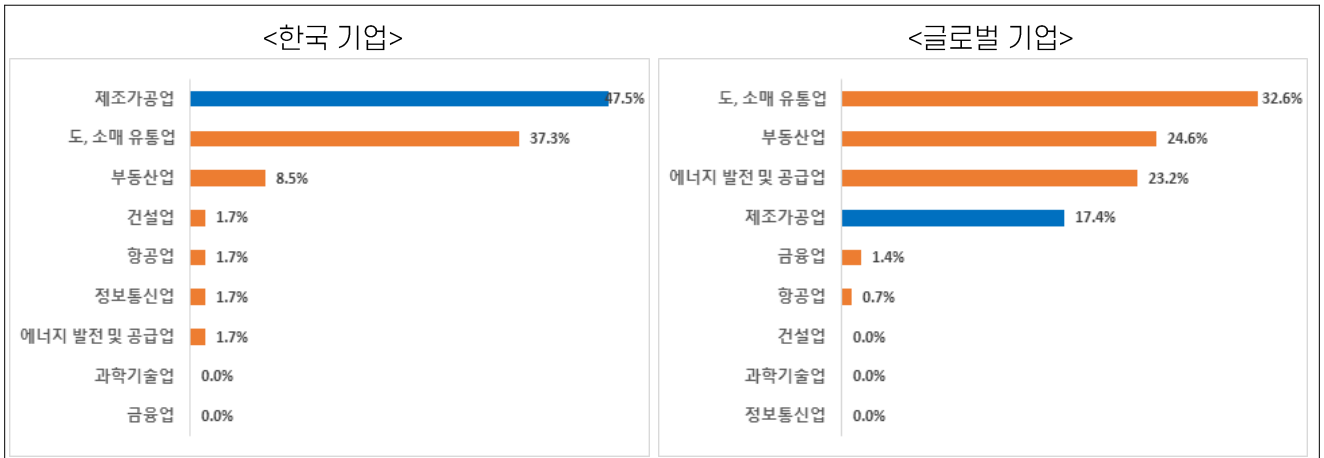


< 현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 지속기간 >



미·중 무역전쟁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애로사항으로 이동제한, 수출량 감소, 조업 및 영업활동 제한 등이 주로 꼽혔으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분야로는 한국 기업은 제도가공업(47.5%), 도소매유통업(37.3%)을 글로벌 기업은 도소매유통업(32.6%), 부동산업(24.6%), 에너지 발전업(23.2%)을 꼽았다.

< 현 사태로 인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분야 >



○ 중국 내 사업장(시장) 전망

중국 내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들의 경우, 진출목적 중 가장 높은 비율은 현지 유통, 서비스 시장 진입이었으며 다음으로 글로벌기업은 제 3국 수출을 위한 제조기지(32.5%), 한국 기업은 원청기업 협력사 진출(27.6%)이 높았다.

미·중 무역전쟁 및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내수 및 수출 시장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 1년에서 최대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답변이 약 89%로 가장 많았으나, 글로벌 기업의 경우 6개월~1년 내 내수시장(92%), 수출시장(86%)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 중국 시장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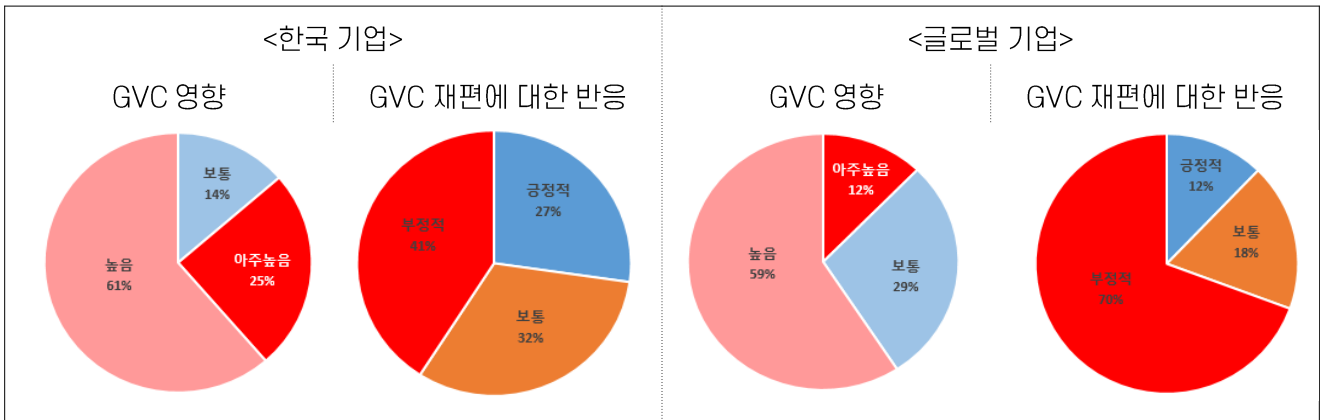


중국 사업장에 대한 향후 투자방향(계획)에 대해서는 한국기업 및 글로벌 기업 모두 높은 비율로 현 상태를 유지(55.6%, 42.9%)하거나 투자 축소(38.9%, 55.1%)를 희망하였으며 사업 종료 및 본국 복귀 또는 3국 이전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 미·중 무역전쟁 및 코로나 19로 인한 GVC영향

공급망사슬(GVC)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 중 85.4%, 글로벌 기업의 87.8%가 영향이 아주 클 것이라 보았으며, GVC 재편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 기업 중 약 40.9%, 글로벌 기업의 69.3%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일 것이라 전망, 반면 긍정적일 것이라는 답변은 각각 27.2%, 12.2%에 불과하였다.

< 현 사태로 인한 GVC 영향 및 GVC 재편에 대한 반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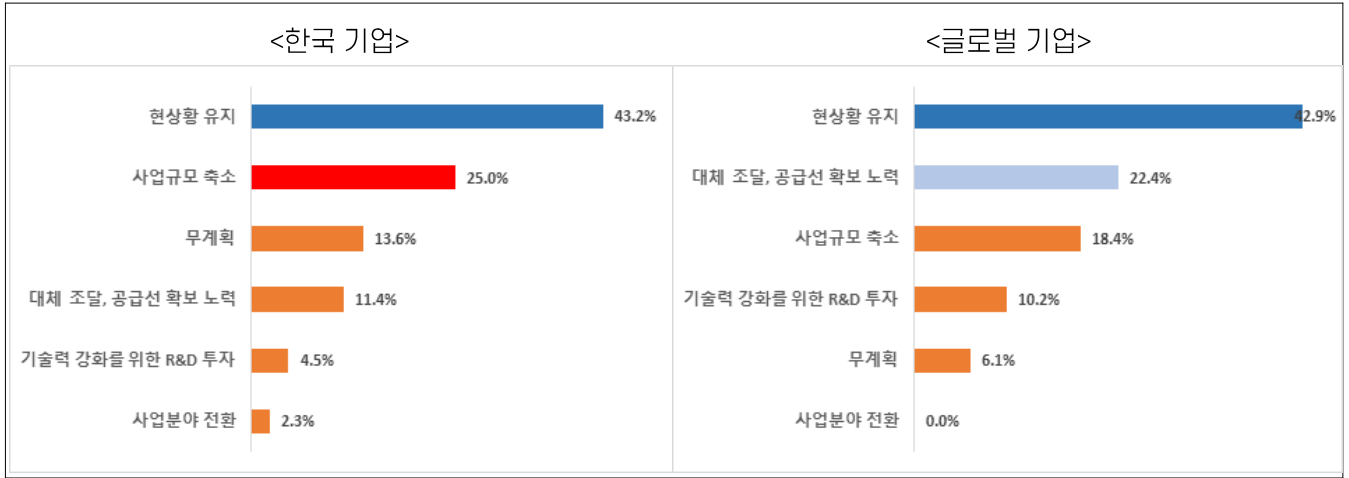


중국 내 기업과의 원부자재, 완제품 거래 비율(의존율)은 한국기업 및 글로벌 기업 모두 10~30% 정도를 중국 내 기업과 거래한다는 답변이 각각 25.0%, 53.1%로 가장 높았으며, 50% 이상을 거래한다는 답변도 한국기업 15.9%, 글로벌 기업 12.2%로 중국 의존도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향후 중국과의 지속거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기업의 54.5%, 글로벌 기업의 22.4%가 거래를 유지하길 희망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GVC 개편 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기업, 글로벌 기업 모두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답변(43.2%/42.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기업은 '사업 축소'를 글로벌 기업은 '대체조달 및 공급선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답하였다.



< GVC 재편 시 향후 대응방안 >



현 상황에 대해 한국기업은 무리한 공급망 변화를 시도하기 보다 중국 및 베트남을 축으로 한 기존 GVC를 활용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좀 더 적극적인 GVC 개편을 위한 모색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시사점

동 조사를 수행한 결과 베트남 진출한 한국, 글로벌 기업 모두 미·중 무역전쟁 및 코로나 19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으나 당장 脫중국을 하거나 중국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중국 중심의 GVC 체계가 당분간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나 향후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업 대비 한국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미흡해 보이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한국 제조 산업 특성상 최대 공급처인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바로 축소시키기엔 한계가 있으나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 수출을 위해서라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중남미 등 공급선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끝>



베트남, 포스트 코로나 FDI 투자 유치 동향

- 2020년 10개월간 베트남 FDI 유치 총액 234억8000만 달러 돌파
- 2020년 10개월간 대(對)베트남 FDI 투자국 순위 싱가포르1위, 한국 2위, 중국 3위 순

베트남 포스트코로나 FDI 유치 동향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투자청은 2020년 10개월 동안 베트남의 FDI 유치 총액은 234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올 10개월간 총 2,100건의 신규 프로젝트가 유치됐으며 등록 자본금은 116억 6000만 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나머지 기존 프로젝트 추가투자가 57억 1000만달러, 주식 매입이 61억 1000만 달러 등 이었다.

구체적으로 바리아 붕파우 지역에 태국 시암시멘트그룹(Siam Cement Group)이 석유 화학단지 프로젝트에 13억 8000만 달러를 투자했고, 한국 대우가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프로젝트에 7억 7400만 달러를 투자해 총 투자금액을 약 51억 달러로 늘린 것이 가장 컸다.

지출 자본금은 총 18개 산업 분야에 투자됐으며, 제조·가공업 분야가 107억 달러 이상을 지출해 전체 지출의 45.7%를 차지했고, 전력 생산·배전 분야의 지출이 48억 달러, 부동산 분야 지출은 35억 달러, 도·소매 분야 지출은 14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투자국별로는 투자를 밝힌 109개국 중에서 싱가포르가 10개월간 투자액 75억1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34억 2000만 달러로 2위, 중국이 21억 7000만 달러로 3위를 차지했다.

투자유인요소

- 1) 안정적인 거시경제와 다양한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
- 2) 차이나+1 반사 이익 국가
- 3) FDI 기업 친화 정책

투자방해요소

- 1) 인프라 부족
- 2) 숙련 노동자 부족
- 3)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 절차

신규 FDI 투자를 환영하는 베트남 정부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 투자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투자자 및 관련 기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돕기 위한 FDI 유치 특별 실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FDI 투자유치 특별 실무반은 이전처럼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협력을 제안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투자자가 협상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미리 파악해 홍보 및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베트남 제조업 진출을 위한 주요 입지조건 및 유의사항

- 베트남 남북부지역 대비 임대료 1/3수준인 중부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
- 공단위치, 물류비용, 추가 지불 요금, 인센티브 등 철저한 사전 조사 필요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국내 사업 여건의 악화와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에 따라 한국 기업을 비롯한 많은 제조업체들이 생산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는 추세가 뚜렷했다. 외국인 투자 분야가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조업 투자 비중이 일부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도 제조업이 투자의 절반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폭발적인 관심에 비해 베트남 제조업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거나 안내를 받기보다는 몇몇 지인이나 베트남 현지에서의 제한적인 경험에 기반해 아쉬운 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종종 있다.

베트남 주요 지역별 제조업 투자현황

베트남은 크게 북부, 중부, 남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직할시급 이상의 도시는 북부 수도 하노이와 항구도시인 하이퐁, 중부의 다낭 그리고 남부의 호치민과 켄터가 있다. 이 중 베트남 남부 호치민시는 투자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그 뒤를 이어 하노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베트남 정부 정책과 삼성과 같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북부지역이 부상하였다. 한편 최근 수년 사이에 다낭을 중심으로 베트남 중부 지역에 대한 투자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기존의 주요 산업이었던 관광업 이외에 부동산개발, 제조업에도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주요 지역별 공단 임대료 현황

베트남 남부 지역의 공단 임대료는 호치민시의 경우 sqm당 100~260달러(30~40년 기준), 동나이성은 65~100달러(35~50년 기준) 수준으로 그나마도 입주 가능한 부지가 흔하지 않은 상황이다. 북부의 경우 최근 임대료가 급속도로 상승해 8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부의 다낭 인근 1~2시간 이내 지역의 경우 아직 공단 임대료가 3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곽의 낙후된 지역에서는 정부 지원으로 설립되고 운영하는 공단에서 파격적인 임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베트남 공단 세금(법인세) 혜택

베트남은 외국인의 제조업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감면이다. 공단으로 입주할 경우 최소한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와 다음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즉, 10% 법인세 적용)이 주어지는데, 많은 경우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와 다음 9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외에도 하이테크 인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15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그 다음 9년간 법인세 5%(법인세 10%에 50% 추가 감면 적용), 그 다음 2년간 법인세 10%(법인세 20%에 50% 감면 적용) 등 총 15년간에 걸쳐서 법인세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베트남 e스포츠, 월드컵보다 롤드컵?

- 인터넷 보급률 증가로 베트남 e스포츠 콘텐츠 지속 성장 예상
- 게임 출시 규정 비교적 엄격, 진출 시 주의 필요

베트남 e스포츠 성장 기반

2020년 1월 기준, 글로벌 소셜미디어 사용자 조사기관 ‘We are Social’ 및 소셜 미디어 관리 플랫폼 ‘Hootsuite’에 따르면 베트남 인터넷 사용자 수는 약 68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중 게임시장 성장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다. 베트남 인구구조를 봐도 e스포츠 시장 황금 연령대인 Z* 및 M* 세대가 다수이다. 베트남 인구는 만 16~24세 연령대가 전체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아포타(Appota)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베트남에는 약 1500만 명의 게임 플레이어가 존재한다. 그 중 약 1000만 명이 주기적으로 e스포츠 관련 콘텐츠 시청자로 추정된다. 베트남 e스포츠 시장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5%로 가장 높다. 현재 베트남 e스포츠와 미국 게임 개발 회사인 라이엇 게임즈(Riot Games Inc.)가 주최, 주관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베트남 지역 리그(VCS, Vietnam Championship Series)가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회 중 하나이며 현지 e스포츠 프로게임단은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어 비율이 높다.

베트남 e스포츠 시장 및 동남아 국가

동남아시아 온라인 게임 시장은 2025년 약 100억 달러 가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중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8년 구글-테마섹(Temasek)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동남아 인터넷 경제에서 게임 및 광고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성장하면서 “용이 풀려났다”라고 한 바 있다.

베트남 e스포츠 시장 잠재성

가레나(Garena) 및 중국 인터넷/미디어 기업 텐센트(Tencent)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아레나 오브 발러 월드컵 2019 (AWC 2019) 영상 동시 최다 접속 수는 약 85만 명에 달했다. 한편, 예선부터 결승까지 총 8일간 방영된 영상 누적 접속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총 7450만 명에 달했다. 해당 수치는 최근 베트남 내 e스포츠 시장이 발전 중임을 암시한다. e스포츠 수익성 문제는 베트남 시장의 난제 중 하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게임 배급사는 성장 잠재성이 있다 판단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2020 베트남 다낭 건축자재 전시회 VIETBUILD 참가기

- 코로나19진정세 이후 첫 대형 오프라인 전시회
- 목재, 대리석 디자인의 내장재 및 스마트도어락이 가장 많은 부스 차지

개최가 불확실하던 ‘2020 베트남 다낭 건축자재 전시회 VIETBUILD 다낭’이 코로나19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듦에 따라 지난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개최되었다. 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참가 규모가 작년 대비 약 20% 감소하였지만, 베트남을 대표하는 건축자재 전시회인 만큼 여전히 관련 업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코로나19사태 이후 다낭 첫 오프라인 대형 전시회

코로나19로 인해 대다수 산업의 비즈니스 활동이 위축되면서 다낭시 건축시장 또한 올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8% 역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첫 대형 오프라인 전시회라는 점에서 지역 비즈니스 재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작년에 비해 참가 규모는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참관객과 주요 업체들이 참가하며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시정부와 기업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플라스틱, 세라믹 등 다양한 재질의 내장재 업체 다수 참가

이번 전시회는 약 2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하였는데, 분야별로는 인테리어 내·외장재 등 건축자재 분야 54개사를 비롯, 도어락, LED와 같은 보안 및 조명 관련 기업 42개사, 샤워부스, 주방 설치 기구, 가구 등과 같은 내외부 장식재 분야 63개사, 정수기, 엘리베이터, 물탱크 등 기타 관련 제품 30여 개사가 참가하였다. 전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제품은 벽면 시트나 바닥재로 사용될 수 있는 인테리어 내장재로 모조 대리석 장식의 화려한 세라믹 타일 제품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시회 참가 기업들이 뽑은 최신 트렌드는 친환경과 스마트홈

베트남 건설자재연구원(Vietnam Institute for Building material)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자재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부지역은 베트남 타지역에 비해 일광시간이 길고, 태양복사량이 풍부하여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 자재들이 적합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이번 전시회에도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기 및 온수기, LED 전등, 태양광 조명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형 제품들이 전시되어 건축계에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낭은 호텔, 리조트 등 관광산업 건축 프로젝트가 많아 객실용 스마트도어락 및 CCTV 등 보안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어왔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스마트도어락 등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였으며, 취급하는 수입제품도 호주, 중국, 대만, 독일 등 다양했다.





베트남,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페인트시장

- 외국산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 상당
- 중산층 확대, 도시화로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 증가 기대

베트남 도료 시장은 제조업 발달과 인프라 건설 확대 및 부동산 개발 호황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전체 도료 시장의 60% 이상을 건설용 페인트가 차지하고 있으며, 인테리어 페인트 시장도 아직은 초기단계이나 베트남 중산층 확대 및 도시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관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하는 베트남 도료시장

2017년 말 기준 베트남 도료 시장 규모는 약 6억2000만 달러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베트남 내 제조공장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공업용 도료 수요가 증가하였다. 코팅스 월드(Coatings World)는 2019년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베트남 전체 도료 시장의 62%는 건설용 페인트가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인테리어용 페인트 시장 규모가 2018년 3억8000만 달러에서 2021년 4억 600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베트남 소비자가 건축용 페인트 선택 시 중시하는 요소로는 ① 오염물 제거 용이성 ② 작업성 ③ 내수성, 내마멸성이 있다.

‘홈센터’ 등 DIY족을 위한 현대 유통망 증가 추세

과거 베트남의 가정용 공구와 인테리어용 페인트 등은 소형점포나 전문점 등 전통적인 유통채널에서만 취급했으나 최근 베트남 소비자 구매력 증가에 따라 집 꾸미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DIY 상품, 소형가구, 생활용품 등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홈센터’가 베트남에 등장하였다.

시사점

높아진 소득과 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KOTRA 호치민 무역관에서 시장조사를 한 결과 실내 벽면용 친환경 페인트 제품, 바이오 실리콘 등 고급라인의 제품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유명 글로벌 브랜드의 증가, 저가 라인 제품*의 비중이 높았다. 한편, 현지 소비자 건설용 페인트 선호 브랜드에 대한 질문에 듀럭스, 요턴 등 글로벌 브랜드 선호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산 제품의 약점으로 ① (글로벌 유명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 ② 현지 시장에서의 낮은 인지도 등을 꼽았다.





▶ 미국, 베트남산 폴리에스테르 원사에 대해 반덤핑 조사 착수

미국 상무부(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DOC)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수입한 일부 폴리에스테르 원사(Polyester textured yarn, PTY)에 대해 반덤핑 의혹을 갖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함. PTY는 의류, 인테리어, 시트커버, 가방 및 기타 섬유제품에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 원사인 것으로 알려짐. 베트남 산업부 무역구제청 (The Trade Remedies Authority)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020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미국으로 수입된 베트남산 폴리에스테르 원사(실)에 대한 54.13%의 반덤핑 마진 의혹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 밝힘. 조사에서 베트남산 폴리에스테르 원사가 미국 산업에 물질·산업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정을 받으면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을 비롯한 혐의 국가에 반덤핑 금지 세액을 부과할 방침이며 2021년 4월에 예비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임. 베트남 관세총국에 의하면 2019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폴리에스테르 원사는 약 450만 달러에 달하며, 2019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미국이 수입한 폴리에스테르 원사의 8.7%는 베트남 산인 것으로 알려짐.

[Vietnamnet, 11. 26]

▶ 중국-베트남 무역 급증, 교역규모 1,000억달러 초과

중국은 올해 베트남과 1,000억 달러의 무역액을 기록한 첫 국가가 됨. 베트남은 지난 10개월간 중국에 379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출하여 전년도 동기 대비 14.8%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수입액은 5.9% 증가한 65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베트남의 대 중국 주요 수출 상품은 스마트폰, 컴퓨터, 기계류, 목재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컴퓨터, 기계류, 의류 및 제화 산업용 자재, 스마트 폰 등이 있음. 베트남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또한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자임. 중국 본토에서만 올해 10개월간 등록된 FDI가 총 21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싱가포르와 한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음.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과 FDI의 증가가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제 3국 수출용 중간지대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경고함.

[VN Express, 11. 20]

▶ 폭스콘 베트남 광닌 공장, 1차로 100개의 LCD 디스플레이 출시

베트남 정부는 대만에 본사를 둔 아이폰 주요 협력 제조사인 폭스콘이 베트남 광닌 공장에서 1차로 LCD 디스플레이 100개를 출시했다고 발표함. 폭스콘 광닌 공장에서 매년 생산될 2만여개의 LCD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수출용으로 알려짐. 폭스콘은 2021년 까지 총 수출 2억 5천만 달러를 목표로 100만개의 LCD 디스플레이와 TV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 설비를 증설할 것이라 밝힘. 폭스콘은 향후 10억 달러 규모로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임. 2020년 11월 기준 폭스콘 광닌 공장은 총 15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2021년까지 공장 증설에 따라 직원을 700-1,000명으로 증원할 계획임.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제조 협력사인 폭스콘은 2007년 북부 박닌 지방에 첫번째 베트남 공장을 세운 바 있음.

[Nhiep Cau Dau Tu, 11. 19]



▶ 베트남 국회, 국영항공사 구제금융 투입 계획

베트남 국회는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국영항공사인 베트남 항공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것 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힘.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베트남 항공이 필요로 하는 자금은 미화 5억 1,200만 달러 선으로 알려짐. 베트남 중앙은행(SVB) 역시 금융기관을 통해 베트남 항공에게 간접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여 구제책에 동참할 계획임. 정부가 86%의 주식을 소유한 국영기업인 베트남 항공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올 9개월 동안 총 4억 5,300만 달러의 순손실을 보고함.

[Tuoi Tre, 11. 18]

▶ 베트남 소매업체, 시장점유율 확대 노력

2020년 베트남의 슈퍼마켓 수는 2019년에 비해 19% 감소함. 특히 빈마트 플러스의 많은 지점들이 문을 닫으며 감소세가 두드러짐. 반면 편의점 점포수는 2019년 2,495개에서 2020년 5,228개로 60% 증가함. 또한 쇼핑센터는 2019년 96개에서 2020년 107개로 약 11%의 성장률을 기록함. 빈마트는 향후 5년간 10,000개의 매장과 300개 이상의 슈퍼마켓을 오픈할 계획이며 SAIGON CO.OP은 향후 5년간 최소 2,000개의 매장과 연 평균 8~10%의 매출 성장을 계획함. 국내 거대 유통업체는 물론 이온몰, 롯데, BIG C, 메가마켓 등 외국인투자기업 역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모색하는 것으로 드러남.

[Vietnamnews, 11. 17]

▶ 롱탄 공항, 다음달부터 건설 착수

베트남 공항공사(ACV)는 다가오는 12월부터 롱탄(Long Thanh) 국제공항 건설을 시작하여 2025년까지 완공시킬 계획임. 동 프로젝트 주요 개발자로 배정된 베트남 공항공사 라이 쉐언 탄(Lai Xuan Thanh)회장은 현지 언론을 통해 약 42억 8천만 달러 혹은 필요한 총 자본의 91% 이상을 공항 건설 1단계에 투입할 것이라고 언급함. 한편, 현지 정부는 지난주 롱탄 국제공항 건설 1단계 46억 달러 건설을 승인함. 프로젝트 1단계는 폭 75m, 4km 길이의 활주로 1개 및 기타 공간을 포함하며, 연간 2500만 명의 승객과 120만 톤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37만 3,000평방미터 규모의 여객터미널이 설계될 예정임.

[VN Express, 11. 16]

▶ 온라인 전자상거래 매출 증가로 인해 오프라인 소매점 매출 저하

사빌스 베트남은 베트남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억제했으나 호치민의 상가 임대 점유율이 낮아지고 주요 상권의 가게들이 매출 저하로 문을 닫았다고 보고함. 식·음료 및 패션 부문 소매 사업자들은 임대 공간을 줄이거나 운영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매장 임대 철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호치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1월-9월 식·음료 서비스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전자 상거래 부문은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혀짐. 닐슨의 7월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소비자의 64%가 배송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으며 63%는 오프라인 쇼핑 대신 온라인쇼핑을 선택할 것이라 밝힘.

[VN Express, 11. 16]



▶ RCEP, 아세안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공동 서명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이 2012년부터 8년 간의 협상끝에 11월 15일 15개 회원국에 의해 서명됨.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뿐 아니라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RCEP는 전세계 총생산의 거의 30%인 26조 2,0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세계 인구의 약 1/3을 커버하는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범적인 무역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회원국들 사이에 포스트 코로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가 기대됨. 베트남 산업부 FTA 정책과장은 RCEP으로 인해 아세안 회원국의 기업들이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무역을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

[Vietnamnews, 11. 15]

▶ 베트남 인터넷 경제, 140억 달러에 달해

구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베트남 인터넷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16% 성장한 140억 달러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구글-테마섹 및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가 발표한 2020년 동남아시아 인터넷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6개국(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 베트남 디지털 경제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동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디지털 경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29% 성장할 것이며, 이는 필리핀(30%)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성장률임. 2019~2020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온라인 미디어, 운송 및 식품 부분은 성장했으나 여행 서비스 부문은 하락세를 기록함. 전자상거래는 약 46% 성장한 70억 달러, 교통 및 식품은 50% 성장한 16억 달러, 온라인 미디어는 18% 성장한 33억 달러를 기록함.

[VN Express, 11.12]

▶ 베트남 국회, 2021년 사회경제발전계획 결의안 통과

베트남 국회, 2021년 사회경제발전 계획 결의안을 통과,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2021년도 GDP 성장 목표 6% 승인, 1인당 GDP 약 3,700달러,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CPI) 약 4%, 총요소 생산성 (TFP) 비율 약 45-47%, 사회 노동 생산성 성장률 약 4.8%, 훈련 근로자 비율 약 66%, 학위와 자격증을 소지한 훈련된 근로자 수 약 25.5%, 건강 보험 가입자 비율 약 91%, 도시의 상수도 공급 비율 90%, 도시의 일상 고형 폐기물 수집 및 처리 비율 87% 이상,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중앙 폐수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산업 단지 및 수출 처리 구역 비율 약 91%, 산림 면적 약 42%.

[VN Express, 11.12]

▶ 제 37차 아세안 화상 정상회의 개최

11월 12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37차 아세안 화상 정상회의 개최함. 한국은 11월 12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 정책 플러스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짐. 11월 13일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태국을 포함한 메콩 국가 지도자들과 하는 한-메콩 정상 회담에 참여할 예정이며 11월 14일은 제23차 ASEAN+3 (아세안 10국+한·중·일) 정상 회의와 아세안 10개국과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짐. 11월 15일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RCEP) 협정 회의가 열린 후에 RCEP 서명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짐.

[Vietnam Plus, 11. 12]



▶ 라자다와 그랩, 비즈니스 파트너십 공동 발표

베트남 최대의 전자 상거래 기업인 라자다와 베트남 최대의 공유 플랫폼 기업인 그랩이 두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합하는 파트너십을 공동 발표함. 양사의 성명에 따르면 라자다는 11월 11-12일 양일간 베트남 메가 페스티벌에서 두 기업의 협력 프로모션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라자다와 그랩의 사업은 일부 통합되고, 배송 플랫폼과 프로모션 플랫폼 역시 통합될 것으로 알려짐. 또한 양사는 각 고객과 관련된 마케팅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임. 그랩은 매리어트 호텔 체인과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표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베트남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라자다와의 협력을 발표함.

[Vietnam Insider, 11.11]

▶ 베트남 1인당 GDP, 9천 달러 기록(구매력 기준)

베트남 응웬 쉐언 푸크(Nguyen Xuan Phuc) 총리는 구매력 평가에서 베트남 1인당 GDP가 지난 6년간 약 145% 증가한 9천 달러를 기록했다고 언급함. 지난 11월 10일 국회 질의응답에서 베트남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빈곤율을 9.8%에서 3% 미만으로 낮추고 약 2,8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언급함. 구매력 평가 지표(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1인당 GDP는 분석가들이 각각의 환율을 고려하여 경제 생산성과 국가간의 생활수준을 비교하는데 사용됨.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는 8,374달러를 기록함. 2016-2020년 베트남은 독성 폐기물 유출 및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옴.

[VN Express, 11.11]

▶ 기업인수합병(M&A)을 통해 수 십억 달러 베트남으로 유입

한국 투자자들, 최근 베트남과의 기업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 SK그룹의 자회사인 SK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9개월간 IMEX Pharm 주식의 25%인 1,200만 주를 인수함. 롯데 그룹 소속 롯데 케미칼은 비나 폴 리텍을 인수함. 또한 GS 칼텍스는 390억 VND (미화 170만 달러)를 투자하여 Viet Wash의 모회사인 VI Automotive Service 주식 16.7%를 인수함

[Vietnamnet, 11. 10]

▶ 베트남 가계 지출, 2021년 9% 이상 급등 전망

베트남의 가계 지출은 2021년 전년 대비 9.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무알콜 음료 및 음료수 관련 2020년 지출 전망은 12.6%, 2021년은 7.7%로 2년 연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1년 의류·신발 (15.5%), 술·담배 (16.3%), 가구 및 인테리어 용품 (12.1%), 레저·문화 (15.9%), 외식· 호텔 서비스 (15.4%) 규모로 가계 지출이 늘어날 전망.

[Vietnamnet, 11. 09]



▶ 베트남 M&A시장, 2022년 70억 달러 규모로 V자형 반등 전망

투자 컨설팅 회사인 AVM 베트남과 투자관련 언론사인 Vietnam Investment Review (VIR)가 주관하는 제 12회 베트남 M&A포럼 이 지난 11월 5일 “뉴노멀의 상승” 이라는 주제로 하노이에서 개최됨. VIR의 모 회사인 ‘Dau Tu 신문’ 편집장, Le Trong Minh에 따르면 베트남의 2019년 한 해 M&A규모는 72억 달러로 전년 대비 5.3% 감소함. 2020년 10월까지 M&A규모는 35억 달러로 보고 되었으며 전년 대비 51.4% 감소할 전망이다. 베트남의 2019년과 2020년 9개월간 M&A 시장을 종합할 때 국영기업 민영화 속도가 더딘 것이 M&A시장 저조의 원인이라 분석함. 또한 베트남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잘 막아낸 덕분에 2021년에는 베트남의 M&A 시장이 약 40-45억 달러 규모, 2022년에는 70억 달러 수준으로 V자형 반등을 할 것이라 전망함. 한 편 Merger Market과 HSF에서 조사한 CMAC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6개월동안 전 세계의 총 M&A 건수는 6,943건, 총 규모는 9,017억 달러인 것으로 알려짐.

[Hanoitimes, 11. 06]

▶ 호치민시, 스마트 산업단지 개발에 주력

호치민 시는 첨단기술(HIGH-TECH)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스마트 산업단지 개발에 주력함. 다른 지방 성·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투자효율성 향상이 필요함. 호치민 시는 건설부에 산업단지를 평가하여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함. 건설부는 호치민 시가 첨단 기술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도움 것으로 알려짐. 개발 예정인 산업단지 중 빈칸 지구에 390헥타르 규모의 첨단 산업 단지 건설 제안이 긍정적인 투자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그러나 호치민 시에 위치한 산업단지간의 연계성이 떨어져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됨.

[Vietnamnews, 11. 05]

▶ 원단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섬유·의류 업계

베트남에서 생산된 직물 품질은 EVFTA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베트남에서 섬유·의류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주로 수입산 직물에 의존함. 베트남의 섬유·의류업계는 매년 약 100억 미터의 원단이 필요함. 이 중 70억 미터가 넘는 원단이 중국, 대만, 한국에서 주로 수입됨.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25%의 원단은 중저가 의류를 만드는데 주로 쓰이며 의류 제조시 수출 기준 품질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EVFTA 원산지 규정은 베트남 기업들이 한국에서 원단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양국은 기술 사양을 협의하여 원단의 원산지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한국산 원단의 수입비중은 15.2%에 불과하지만 한국산 원단은 중국과 대만산 보다 저렴할 수 있어 생산 기업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짐.

[Vietnamnews, 11. 04]



▶ 베트남 10월 구매관리자지수(PMI) 51.8

구매관리자지수는 제조업 부문 구매관리자의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50이 넘는 경우 경기 상승을 나타내며 50 미만인 경우 경기 위축을 뜻함. 11월 2일 IHS MARKIT이 발표한 베트남의 10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1.8로 9월 52.2 대비 0.4p 하락함. 베트남의 8월 기준 PMI지수는 45.7이었으나, 9월과 10월 두 달 모두 꾸준히 구매관리자 지수가 50을 넘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HIS MARKIT이 발표한 다른 ASEAN국가의 10월 PMI지수는 다음과 같음.

인도네시아 (47.8), 말레이시아 (48.5), 필리핀 (48.5), 태국 (50.8), 싱가포르 (52), 미얀마 (30.6)

[HIS Markit, 11. 03]

▶ 국내 조립·생산차 등록세50% 감면 혜택12월 말 종료, 자동차 판매량 상승

국내 조립·생산차에 적용되는 차량 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그 전에 차량을 사려는 구매 수요가 증가함. 기아차에서는 쉐르토스와 소렌토 모델의 주문량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대차 대리점에서는 코나, 투싼, 싼타페의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짐. VAMA는 9월 한 달간 총 27,752대의 차량이 판매 되었으며 전월 대비 판매량이 32% 증가했다고 밝힘. 베트남의 각 자동차 회사별 판매량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여 9월 한 달간 전월 대비 빈패스트 146%, 현대 TC모터 53%, 기아 52%, 도요타 49%, 스즈키 45%, 미쓰비시 46%의 판매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Vietnamnet, 11. 02]

▶ 재무부, 공유 경제 기업의 세금 신고 누락 문제제기

재무부, 공유경제 기업의 조세 및 조세관리 보고서를 발표,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행 베트남 세법이 일반 사업과 공유경제 사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일반 기업은 사업 유형에 따라 세금 징수가 전부 가능하나, 국외에 본사가 있고 베트남에 지사를 내어 사업하는 경우 현행법 상 법인세만 납부하는 실정이라고 밝힘. 공유경제 회사가 고객에게 실물 현금결제를 받는 경우 세금신고 누락이 용이함. 베트남은 76개의 이중과세 회피 협정에 서명했기 때문에 해외에 모기업을 둔 서비스 제공 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규정상 불가할 수 있음.

[Vietnamnet, 10. 28]

▶ 2020년 베트남 모바일 광고 시장, 2억 1100만 달러 예상

베트남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 아포타(APPOTA)가 발표한 '2020 상반기 베트남 모바일&스마트폰 어플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모바일 광고 시장 규모는 '20년 말까지 약 2억1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모바일 광고 지출 6위를 차지함.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광고 점유율이 높아졌음. 그 중 모바일 광고는 디지털 광고 지출 전체의 약 60% 이상을 차지함.

[Vietnam Plus, 10. 27]



아세안 화상 정상회담 개최 결과

- ▶ 제 37차 아세안 정상회의(11.12-15일) 개최, '아세안 포괄적 복구 프레임워크' 구축 결의
- ▶ 韓 정상 5개 화상회의* 참석, 신남방정책+ 발표, 자유무역과 보건·의료 협력 화두 강조
- *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RCEP

□ 개최 개요

- 제 37차 아세안 정상 화상회의(11.12~15일) 개최, 18개국 정상들 참여*, 예정된 20여개 회의 개최, 80여개 문서 승인 완료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불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참

□ 주요 의제

- (한-아세안) 제 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신남방정책+' 전략 발표
- 7대 핵심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포용적 동반성장 강조

<신남방정책 플러스 7대 전략 방향>

- ①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②한국의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 ③한류 활용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 ④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기반 구축,
- ⑤상생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 협력, ⑥공동번영의 미래산업 분야 협력,
- ⑦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 (한-메콩) 기존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단계 격상

- 7대 우선협력분야*를 중심으로 한-메콩 협력 내실화, 공동성명** 채택

* △문화·관광, △인적자원개발, △농업·농촌 개발, △인프라, △ICT, △환경, △비전통안보

** △한·메콩 관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한국의 신남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지지·환영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한국의 지원 평가 등

- (아세안+3) 공급망 연계성·회복력 강화, 디지털화 지원 협력 등

- 경제충격에 공동대응하고 경제·금융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 채택

* △아세안+3 경제장관·재무장관·중앙총재 협력 촉진 △시장개방 등을 통한 공급망 연계성 및 회복력 강화 △개방적·포괄적 규범기반의 다자무역체제 지지 △연계성 증진을 위한 협력 확대 △중소기업 등 코로나19 취약 주체의 디지털화 지원협력 강화 등

- (동아시아정상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요청, 방역·보건 협력 제안, 감염병 예방·대응 관련 공동역량 강화 성명 채택 등

* 회원국 : 아세안10개국,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18개국)



○ (RCEP) 15개국 참여 정상회의 및 서명식 개최, 공동선언문 채택 등

- 2012년 협상 개시 선언 이후, 8년간 31차례 공식협상과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금년도 10여차례 화상회의를 거쳐 타결
-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분야로 구성, 특혜관세 적용, 단일 원산지 기준 적용,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 강화 등 혜택 예상

□ 주요 국가별 반응

- (베트남) 응웬 쉐언 폭 총리, 아세안이 다자무역체제를 지원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아세안 지역에 새로운 무역구조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무역과 중단된 공급망 개발을 촉진 시킬 예정
- (태국) 브라운 째오차 국무총리, 한-태 간 ‘보건의료 프레임워크’ 구축을 지원할 준비가 되었으며, ‘신남방정책+’에 대한 사의 표현
-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 역내 국가 간 안전한 여행 재개 추진 노력 필요성 강조, 한중일과의 협력 확대 중요성 언급 등
- (인도네시아) 한-인도네시아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낙관적 입장 표명
- (호주) 스캇 모리슨 총리, RCEP 타결을 환영, 호주 농업 관계자 및 농업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 시사점

- 韓中日의 對아세안 보건·방역 분야 협력이 강화되고, 한-아세안은 경제협력에서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RCEP은 전세계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의 30%에 해당하는 경제권의 FTA로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하고, 향후 한중일 FTA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
- * RCEP 참여 15개국의 전세계 대비 무역비중 28.7%, GDP 비중 30.0%, 인구 비중 29.9%



최근 베트남 건설 비즈니스 동향

KIND 한-베트남 인프라협력센터 박재현 이사장

■ KIND 소개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www.kindkorea.or.kr)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거, 2018년 6월 공식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차원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전문 지원기관이다. KIND는 사업 정보수집, 주요국 인프라 정책 분석 및 G2G 협력을 통해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Developer이자, 타당성 조사 자금지원 및 지분투자를 통한 Investor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사업개발 자문과 채용조달을 위한 금융주선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KIND 한-베트남 인프라협력센터는 작년 7월 개소한 이후 베트남의 첫 PPP법을 제정에 위험분담제도와 태환을 적극 반영시키는 등 우리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현지 인프라 시장 동향 조사·분석, 베트남 정부와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인프라 분야 PPP 사업 기회를 발굴·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수주 지원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 건설 시장 동향

- **베트남 정부, 롱탄(Long Thanh) 국제공항 1단계 사업 최종 승인, 2025년 완공 예정**
 - 쩌딘중(Trinh Dinh Dung) 부총리는 11월 11일 총 46억달러 규모의 롱탄(Long Thanh) 신 국제공항 1단계 사업을 최종 승인, ACV(베트남 공항공사)가 주 투자자로 확정됨
 - 1단계 사업은 폭 75m, 4km 길이의 활주로 1개, 유도로, 주기장(駐機場) 및 연간 2,500만명의 승객과 화물 12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37만3000㎡ 규모의 여객터미널을 건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함
 - 당 사업은 국가 관리 및 항공당국 본부, 비행관제 시설 및 시스템, 필수공항시설, 기타시설 등 4개의 세부 사업으로 나눠 진행 예정
 - 교통부(MOT)의 계획에 따르면, 12월 말 부지외곽 펜스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1년 1분기에 부지 정지 작업 시작 예정.



○ 베트남, 내년 산업용지 공급 크게 증가 예상

- 새빌스(Savills) 베트남은 '20년 베트남 산업백서'에서 "리스크 분산 및 생산기지 다변화 정책에 따른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탈중국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베트남 산업용지 수요와 이에 따른 공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
- 실제 베트남 주요 경제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산업단지 개발이 잇따르고 있으며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Dong Nai)에만 ▲롱탄현(Long Thanh)에 4개 ▲프억빈(Phuoc Binh), 띠히엵(Tân Hiep), 빈안(Binh An)에 4개 등 총 8개의 신규 산업단지가 추가로 건설 예정
- 새빌스 베트남은 "기성 공장의 수요가 높은 가운데 산업용지 공급자들이 단기보다는 중장기 임대를 선호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왔다"며 산업단지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밝힘
- 산업용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주요 경제도시 인근 지역의 산업용지 임대료도 상승하고 있는데, 남부지역인 호치민시, 빈즈엉성, 동나이성, 롱안성, 바리아붕따우성의 산업단지 임대료는 m²당 65~147달러까지 상승했으며, 북부지역 하노이, 박닌성, 흥옌성, 하이즈엉성의 산업단지 임대료는 m²당 76~129달러 수준으로 크게 상승하였음
- 이에, 베트남 국제선 운항 재개후 공장, 창고, 토지임대료가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적으로 약 100여개의 산단이 개발 또는 계획중인 것으로 파악

○ 베트남, 메콩델타 인프라개발에 20억달러 투자 승인

- 응웬 찌 중(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응웬 쉐언 푸크(Nguyen Xuan Phuc) 총리가 최근 기획투자부의 제안을 승인했다"며, 투자금은 주로 향후 5년동안 메콩델타의 고속도로·해안도로 외 심해항 등 개발에 쓰이며, 중앙·지방정부 예산 및 민간자본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발표
- 이중 중요한 프로젝트는 까마우(Ca Mau)-박리에우(Bac Lieu)-컨터(Can Tho)를 잇는 고속도로로서 2025년 완공 예정
- 최근 정부는 총연장 1,000km 가량의 메콩델타 7개 주요 고속도로 건설에 150조동(64억9000만달러)의 투자계획을 확정
- 현재 메콩삼각주에는 전체 베트남 인구의 5분의 1인 약 2,000만명이 거주. 이 지역은 전국 곡물 수출량의 90%를 공급하는 식량창고이자 수산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양식량의 보고임



○ 뚝푸-바오록 고속도로 내년 투자자 선정...연장 67km, 사업비 7억7600만달러

-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Dong Nai) 뚝푸(Tan Phu)에서 럽동성(Lam Dong) 바오록(Bao Loc)을 잇는 길이 67km의 뚝푸-바오록 고속도로가 내년 투자자를 선정할 예정
- 사업시행자인 탄롱(Thang Long)프로젝트관리위원회(PMU)는 뚝푸-바오록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11.7일 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이 프로젝트의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로 BOT(Build-Operate-Transfer)로 진행될 예정
- 뚝푸-바오록 고속도로의 1단계사업은 연장 67km, 사업비 18조동(7억7600만달러), 설계속도 80km/h,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되며 완공시 20번 고속도로의 부하를 줄일 것으로 기대
- 뚝푸-바오록 고속도로는 총연장 200km의 저우저이(Dâu Giay)-리엔크엉(Lien Khuong) 고속도로의 3개 구간중 하나로서, 이에 앞서 ▲저우저이-뚝푸 고속도로(길이 60km, 사업비 6조4000억동), ▲바오록-리엔크엉 고속도로(길이 73km, 사업비 12조동)의 건설은 이미 계획안이 확정. 3개 구간 모두 설계속도 80~100km/h 4차선으로 설계

○ 북남고속도로 PPP사업 재정사업 전환 고려, 베트남 교통분야 PPP 추진 난항

- 2015년 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신규 교통분야 PPP 사업이 없어 교통분야의 PPP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투자자에게 매력적이고 추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았던 5개의 북남고속도로 구간도 발주기관의 예상과 달리 입찰 응찰기업이 소수에 불과, 투자자 선정에 난항
- 지난 10월 입찰 공고한 북남고속도로 45번국도-응이손(Nghi Son), 응이손-지엔차우(Nghi Son - Dien Chau)구간은 응찰자가 없어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고려
- 투자가 부진한 원인으로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어려움이 아닌, 금융조건이 지목
- 베트남 국영은행이 2019년 말 기준 116개 BOT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미상환 차입 자금이 102조동(43억불)에 달한다고 발표한 이후,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들은 교통 PPP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기피하고 있음
- 116개 프로젝트 가운데 59개는 보증메커니즘이 없고,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되는 수입이 부족하여 재무계획 조차도 세우지 못하여 차입한 자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임. 43개 프로젝트는 미상환금이 66조동(28억불)에 달하여 사업자는 채무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외 10개 프로젝트에 투입된 15조동은 약성부채로 평가




(입찰정보)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Khanh An[카잉안] 화력발전소(목재)
- Thu Dau Mot[투저우못] – Chon Thanh[춘타잉]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 Hoa Binh[호아빈] 풍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 세부 프로젝트 정보는 KOTRA 하노이 무역관(jinlim@kotra.or.kr) 별도 문의

2. 프로젝트 세부정보

발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PMU Thang Long – Ministry of Transport ○ 연락처: 84-24-3643-0197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명: Lien Khuong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 현장위치: 베트남 Lam Dong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약 521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미정 ○ 프로젝트 단계: Pre F/S 완료, 정부에 제출 ○ 입찰예정일: 2021년~2022년 (미정) ○ 사업자 선정 방식: QCBS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연장: 73.5km - 시작점: Km126+360과 55 고속도로 교차지점, Loc Phat Ward, Bao Loc City - 끝지점: Km199+717과 Lien Khuong – Prenn 고속도로 교차지점, Duc Trong, Lam Dong성 - 해당 프로젝트는 총 2단계로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4차선, 폭: 17m, 설계속도: 80km/h · 2차: 고속도로 표준 4차선, 폭: 24.75m, 설계속도: 100km/h - 예상 건설비: 약 327백만 달러 - 기타: 2022년 1분기에 입찰, 2025년 준공 (잠정)



2020년 베트남 금융시장 동향

신한베트남은행 / 송현우 전략기획부장

alexhwsong@gmail.com

2020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2020년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갈등과 코로나 충격으로 인하여 큰 변동성을 보였다. 미 연준은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20년중 기준금리를 두번에 걸쳐 1.5% 대폭 인하하였으며 각종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였다. 이에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7월중 최저 0.5% 수준까지 하락하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나타내었다. 반면 미 증시는 S&P500 지수가 상반기중 한때 연초대비 30% 수준까지 폭락하는 등 코로나 공포에 휩싸였으나 이후 통화/재정정책 지원 및 백신 기대감 등으로 급반등하며 11월 현재 연초 대비 4% 수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하반기 중 코로나로부터 가장 빠르게 경기회복하는 국가가 되면서 중국 상해증시는 상반기 2.3% 하락에도 불구하고 11월 현재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중이다. 특히 미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 이후 중국이 수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0년 베트남 금융시장 동향

2020년 3분기 베트남 경제는 서비스 부문 회복과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2.62% 성장하였다. 1~3분기 누적 성장률은 2.12%로, 코로나 여파로 상반기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강력한 통제 조치로 타 국가 대비 빠른 경기 회복을 시연중이다. 베트남 소매 판매가 3분기 이후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내수시장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급감했던 자동차 판매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 생산도 중국 대체생산 증가로 양호해지면서 제조업 경기도 반등 중에 있다, 1~10월 무역 흑자는 195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경제회복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3차례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하였고 이에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초 대비 78bp 하락한 2.64%수준이다. 베트남 증시는 중앙은행의 경기부양 기조 및 양호한 전망에 대한 기대로 개인투자자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며 전년 대비 3% 상승중이고 통화 환율도 양호한 경제지표 등 경제 회복 기대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달러/동 환율은 전년대비 0.03% 하락하였으며 지속적인 무역 흑자와 FDI 유입, 높은 외환 보유고로 인해 당분간 환율은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과 언제나 함께 하는 신한 베트남 은행

신한 베트남 은행은 언제나 '고객 중심'을 기반으로 고객 니즈에 맞는 금융상품과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베트남에서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은행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한 베트남 은행은 Kotra 월간 베트남 비즈니스 뉴스에서 금융 정보로 매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

베트남 2020 개정 기업법, 알아 두어야 할 중요 변경 사항

법무법인 화우 / 최성도 변호사

sdchoi@yoonyang.com

베트남은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어 있던 지난 6월 17일 기업법(Law on Enterprises)과 투자법(Law on Investment)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새로이 개정된 기업법과 투자법은 모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0 개정 기업법(이하 “신 기업법”)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베트남 진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들이 새로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게도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구성과 관련한 중요한 유의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신 기업법의 중요 개정사항을 정리하여 알려 드리며, 투자법은 곧이어 다음 뉴스레터로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에 소개되는 내용들이 기업법 개정 사항을 망라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투자 또는 거래의 실행에 앞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국유기업의 정의(신 기업법 제4조 제11항)

현행 기업법에서 국유기업이란 국가가 정관자본금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한정되나, 신 기업법에 따르면, 국가가 유한회사의 정관자본금 또는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기업 까지로 국유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i) 종래 국유기업은 국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만 설립되고 운영될 것을 전제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신 기업법은 유한책임회사 형태 외에 주식회사 형태의 국유기업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는 점, (ii) 그에 따라 종래 국유기업이 100% 보유 유한책임회사일 것을 전제로 하였던 지배구조 관련 규정들도, 국유기업의 형태에 따라 다수투자자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도록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도 바뀌게 된다는 점, (iii) 국유기업의 요건인 국가의 지분을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유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변경은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구조조정, 조직혁신 및 경영 효율성 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 및 협정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국내법 개정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

이러한 변화가 국내 기업의 베트남 투자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는, 국유기업의 범위 확대로 인하여 더 많은 베트남 기업들이 국유기업에 해당하게 되어 장차 그 자본 및 자산의 처분에 관하여 본격적인 법적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수 대상회사의 내부 승인절차에도 변경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베트남 기업의 인수에 관심이 있는 국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투자 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변경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또한 향후 “기업의 제조 및 사업활동에 투자한 국가 자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 등 민영화 관련 법령에서도 그 적용대상인 국가자본투자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는지 여부의 입법 동향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주식회사에 대한 합작투자 또는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유의할 변경사항

(1) 주주총회(주식회사)의 정족수 완화(신 기업법 제145조 및 제148조)

국유기업의 범위를 국가의 과반수 지분으로 인하하는 것과 함께 과반수 지분 보유에 중요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일련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종래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51% 미만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일반결의조차 좌우할 수 없었으나, 신 기업법 하에서는 과반수 지분 보유로 일반결의를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합작투자를 추진하는 국내기업의 입장에서는 “50%+1주”가 가지는 의미에 유의하여 합작투자 조건을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미 주식회사 형태의 합작기업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베트남 기업의 정관에서 51%를 일반결의의 요건으로 하고 있을 경우, 그러한 정관 규정은 별도로 정관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과반수 지분에 의미를 부여하는 개정은, 다음 호에서 정리해 드릴 개정 투자법(2021년부터 시행)에도 반영되어,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하는 베트남 기업의 범위도 종래 외국인 투자지분(외국인 투자기업의 재투자 합산) “51% 이상”을 기준으로 하던 것이 “50% 초과”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주식회사 주주총회	현행 기업법	신 기업법
의사정족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51% 이상 참석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50% 초과 참석
의결정족수 (일반결의)	출석주주의 51% 이상 동의	출석주주의 50% 초과 동의
의결정족수 (특별결의)	출석주주의 65% 이상 동의	좌 동



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

(2) 우선주주의 의결권(신 기업법 제117조 3항, 제118조 3항 및 제148조)

베트남 기업법상 배당우선주와 상환우선주의 주주에게는 주주총회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았었는데, 신 기업법에서는 우선주주의 권리와 의무에 불리한 변경을 초래하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그러한 불이익을 받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 7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변경(adverse change)”의 의미에 대하여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과거 우선주 인수계약에서 우선주에 대한 불이익 변경의 금지를 규정하더라도 그에 반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기업법상 저지할 방법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우선주주의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3) 소수주주권 강화(신 기업법 제115조, 제153조, 제166조)

현행 기업법상 보통주식 총수의 10%(또는 정관에서 정한 더 낮은 비율) 이상을 6개월 연속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주주그룹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권을 가지며, 그 외에 이사회의 의사록 및 결의서, 회계감사보고서 및 감사위원회 보고서의 검토와 발체, 특별한 경우 주주총회 개최 요청,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신 기업법 하에서는, (i)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권 행사 요건으로 6개월 연속 소유를 요구하지 않게 되어, 보통주식 총수의 10%(또는 정관에서 정한 더 낮은 비율)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주주 그룹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ii) 이사회의 의사록 및 결의서, 회계감사보고서 및 감사위원회 보고서의 검토와 발체, 특별한 경우 주주총회 개최 요청,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6개월 연속 소유 요건이 삭제될 뿐만 아니라 지분비율도 보통주식 총수의 5%(또는 정관에서 정한 더 낮은 비율) 이상으로 완화되어,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 가능성이 확대됩니다(신 기업법 제115조 제2항, 제5항).

한편, 이사회(Board of Management)의 결정이 법령, 주주총회 결의 또는 정관에 위배되어 회사에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현 기업법 하에서는 1년 이상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법원에 이사회 결정의 집행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신 기업법 하에서는 이 또한 1년 이상의 기간 제한 없이 어느 주주든 법원에 집행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신 기업법 제153조 제4항).



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

또한, 이사회 구성원, 이사 또는 대표자 등이 법령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법령, 정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정 사항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회사의 기회를 유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들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가진 1% 주주의 요건에서도 현행 기업법이 정하는 6개월 이상 연속 보유 조건을 삭제하여, 신 기업법 하에서는 보통주식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보유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며(신 기업법 제166조 제1항), 이들 주주에게는 대표소송 제기 과정에서 법원 또는 중재인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조사, 검토, 발체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집니다(신 기업법 제166조 제3항).

주식회사 소수주주권	현행 기업법	신 기업법
이사회-감사위원회 후보자 추천권	보통주식 총수 10% 이상 6개월 연속 보유	보통주식 총수 10% 이상 (주식 소유 기간 불문)
이사회 의사록, 결의서, 회계감사보고서, 감사위원회 보고서 검토-발체, 주주총회 개최 요청, 감사 요구권	보통주식 총수 10% 이상 6개월 연속 보유	보통주식 총수 5% 이상 (주식 소유 기간 불문)
이사회 결정이 법령, 주주총회 결의, 정관 위반으로 회사에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의 집행정지/취소 요청	1년간 연속 주식 보유	모든 주주 (주식 소유 기간 불문)
이사회 구성원, 이사, 대표자에 대한 대표소송	보통주식 총수 1% 이상 6개월 연속 보유	보통주식 총수 1% 이상 (주식 소유 기간 불문)

(4) 사모주식발행 및 기존주주의 비례적 신주인수 우선권(신 기업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

베트남 기업의 정관 자본금 증자는 `누구에게 신주가 배정되는가에 따라 주주배정 증자, 사모배정 증자, 공모 증자로 구분될 수 있는데, 현행 기업법 하에서 비상장 주식회사가 사모배정 증자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사모배정 결의 후 5영업일 이내에 주총결의서 및 사모배정 증자에 관한 기본 정보를 기입한 신고서를 관할 등록기관(성급 기획투자국; DPI)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의 반대 의견이 없는 경우에 사모배정 증자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신 기업법 하에서는, 이러한 사모배정 증자 사전 신고의무가 폐지되고, 주주총회 결의로 사모배정 증자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주주 및 자본금 변경 관련 사항을 사후적으로 등록하면 되므로, 사모배정 증자가 절차적인 면에서는 간소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신 기업법 제123조 제4항).



그런데, 신 기업법은, 비공개 주식회사의 사모배정 증자에 있어서, 인수 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주주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신 기업법 제125조 제2항 및 제124조 제2항). 현행법 하에서는 사모배정 증자에도 기존주주의 비례적 신주인수권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결의를 지배할 수 있으면 사모배정 증자(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었으나, **신 기업법 하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지배할 수 있더라도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참가를 배제하고 사모배정 증자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사모배정 증자	현행 기업법	신 기업법
DPI 사전신고	신고 후 5영업일 이내 반대 의견 없으면 증자 진행	폐지
기존주주의 비례적 신주인수 우선권	주주배정 증자에 적용	사모배정 증자에도 적용

(5) 비공개회사(Non-Public Company)의 사모사채 발행(신 기업법 제128조 내지 제130조)

신 기업법은 회사채 발행에 관하여도 사채 투자자 및 기존 주주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신 기업법은, 공모사채 발행과 공개회사의 사모사채 발행은 증권법의 규율대상임을 감안하여 **비공개회사의 사모사채(매스미디어에 의하지 않고 투자권유 대상자가 100인 미만인 경우)에 관하여 규율하며, 사채 인수자의 자격 제한을 도입하여, 사모 전환사채와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략적 투자자와 전업증권투자자, 그 외의 사채의 인수자는 전업증권투자자로 인수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신 기업법 제128조 제2항 참조).** 또한, 발행된 사모사채의 양도에 있어서도 동일한 인수자격 제한이 적용됩니다(판결 또는 중재판정의 집행이나 상속의 경우는 예외; 신 기업법 제129조 제4항 참조).

이러한 사채 인수자 제한은, 사채의 리스크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발행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하는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울러 발행회사 쪽에서도, 내년부터는 여러 재정적 건전성 지표(financial safety ratio, prudential ratio)를 충족하여야만 사모 사채 발행이 가능하게 되며(신 기업법 제128조 제3항 참조), **절차적으로는 발행 전후 사채 인수자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증권거래소에 대한 보고 의무가 적용되고(신 기업법 제129조 제2항 및 3항 참조),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그로 인하여 권리와 의무에 불리한 변경을 받게 되는 우선주식 7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모사채의 종류, 발행 및 거래 절차,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는 후속 입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신 기업법 제129조 제5항) 향후의 입법 동향도 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6) 무의결권예탁증서(Non-Voting Depository Certificate) 도입(신 기업법 제114조 제6항, 제7항)

1 신 기업법은 전략적 투자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신 기업법과 함께 2021. 1. 1.부터 시행되는 2019 개정 증권법에 의하면 전략적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가 재정적, 기술적 능력을 고려하여 선정한 투자자로서 최소 3년 이상 협력을 약정하는 투자자를 의미합니다(2019 개정 증권법 제4조 제17항).

2 현행 증권법상 전업증권투자자에는 상업은행, 파이낸스사, 리스사, 보험사 및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포함되는데(현행 증권법 제6조 제11항), 2019 개정 증권법(2021. 1. 1. 시행)에서는 전업증권투자자의 범위가 각종 금융기관 외에 정관 자본금 1천억동 이상인 회사, 증권업 영위허가를 가진 자, 보유 상장주식의 가치가 20억동 이상인 개인(증권회사 확인 필요), 최근 연도 과세소득 10억동 이상인 개인(세무신고 등 증빙자료 필요)까지 확대됩니다(2019 개정 증권법 제11조 제1항).

신 기업법은 보통주를 원주로 하는 무의결권예탁증서(Non-voting depository receipt; NVDR)를 도입하고(신 기업법 제114조 제6항), 그에 관하여 후속 입법으로 규율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동조 제7항).

NVDR에는 보통주와 동일한 경제적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지만 의결권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베트남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권의 위협을 받지 않고 해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NVDR을 통해 경영 참여와 무관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베트남의 입법 동향을 지켜 보면,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와 상장회사의 내국인 지분 보호라는 일견 상충되는 정책 목적 사이에서 고심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지난해 2019 증권법의 개정 과정에서, 조약 또는 국내법상 달리 외국인 지분 제한을 두는 경우 외에는 상장회사의 외국인 보유 한도를 조건부사업 영위 여부와 무관하게 100%까지 전면 개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다가 최종안에서 삭제된 것도 이러한 고심을 엿볼 수 있는 일면입니다. 또한, 현재 상장회사의 사업목적 중에 외국인투자자에게 조건부로 인정되는 사업이 포함된 경우에 그러한 상장회사에 대하여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지분은 의결권 지분의 49%로 되어 있는데(조약 또는 국내법상 다른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최근 입법예고 되었던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인 지분 제한을 의결권 지분 기준이 아닌 정관 자본금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NVDR은 정관 자본금 계산에는 포함되지만 의결권 지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NVDR의 발행 가능 물량 및 외국인 투자 확대에 미치는 영향력은 당초 예상보다 반감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 도입된 NVDR이 베트남 기업의 투자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될 것인지는 후속 입법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



[신설법인용] 영업개시단계 필요절차 및 유의사항

서우회계법인베트남 조성룡회계사

csrgs@seouvietnam.com | 098-548-7377

본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진출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여 영속적인 사업 행위를 영위하는 한국 투자자들이 아셔야 할 베트남 내 신설 법인에 필요한 순차적 세무업무절차 및 유관 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외국 개인 또는 외국법인이 다양한 초기 세무 신고절차 및 유의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순차적해당업무	기한	유의사항	비고
사업등록세 납부	매년 1월 30일 이내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금액 결정	설립 첫해는 면제됨.
첫 부가세 신고서 접수 및 납부	월단위 신고 시 익월 20일 또는 분기 단위 시 매 분기 익월 30일 중 택 일	직접법 vs 공제법 방식 중 한 방식 적용 신청해야 함. 첫해는 분기단 위 부가세 신고 기간 적용해야 함.	신설 첫해는 분기 납부 후 연부 가세 매출액 500억 동 초과 시에 월 별 납부 의무로 전환. EPE 기업은 부가세 납세의무자 아님.
첫 법인세 납부	설립일 익분기 첫월 30일 이내	분기별 중간예납 법인세로 반드시 분기 결산서를 제출 하지는 않음. 단, 4기간의 분기 예납 약의 합계액이 연말 법인세 총액보다 20% 이상 작으면 가산금 대상이므로 분기 손익 추정액을 근거로 납입함이 필요함. 분기 결산 감사는 의무 아님.	모든 신설 법인은 분기별 중간예납 의 문자임. 설립 첫해에 한해 10월 이후 설립 사는 익연 도발에 법인세 연말정산 신고 및 합산 가능함(첫해에 한해 최장 15개월을 합쳐 일 년도에 법인세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 가능함. 단, 중간예납은 여전히 의무임).
첫 개인 소득세 신고서 접수 및 납부	회사 합계 소득세 금액(월 VND5천만 동 이상)에 따라 설립일 익월 20일 또는 다음 분기 첫 월 30일 이내임(월 5천만 동 이하의 경우). 그러나, 부가세가 분기 신고 하는 기간 동안은 개인소득 세도 개인소득세 금액과 상 관없이 분기 신고를 수행함.	베트남 내에서 체재하는 외국인은 지급자의 베트남 내 소재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 세 납세의무자임. 근로계약 서상 복리후생비 세금 부과 대상 여부 주의(주택수당, 학자금 수당, 교통수단 지원 등).	노동 계약서와 연계하여 검토해야 함. 근로소득세 면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확인, 회사가 직접 송금, 세금계산서 회사 명의로 수령이 원칙임.
사회보험 가입 및 회사 부담금 지급	급여지급월 말일	2개월 이하 근무 가능한 수습 기간 노동자에게엔 회사 부담금 없음. 3개월째부터 회사 부담금 납부 의무.	노동 계약서와 연계하여 납부 대상 및 금액 검토해야 함.



순차적해당업무	기한	유의사항	비고
첫 외국인 계약 자세 신고서 접수 및 납부	첫 대금 지급 후 10일 이내 납부 및 첫 계약 후 20일 내 TAX CODE 신청해야 함.	외국인 계약자 대금 지급 시 납부. 재화나 서비스의 수입 거래가 있는 회사로 FCT 법령상 국내에서 사용된 서비스가 있다고 간주되는 외국 소재 판매자에게 과세함.	베트남 내 회사는 원천징수의 무자임을 유의.
해외로부터 수령한 대여금 등록 및 FCT CODE 등록	만기 1년 이상의 차입거래(상거래 채무로서 외상매입금 거래는 제외) 중앙은행 계약서 등록 및 이자지급거래는 외국인 계약자세 TAX CODE 등록 대상임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중앙은행 등록: 20일 이내 TAX CODE 등록 및 이자 지급 후 10일 내 납입 완료	미준수 시 벌금 부과됨.
첫 수입 관세 통관신고서 접수 및 납부	첫 수입 통관 시	통관 자재에 대해 관세청에 연도별 수출 신고 보고서 제출 의무 (EPE 기업은 분기별 보고), 법인세법상은 2014년 이후 수출 사전 제출 의무 소멸하나, 여전히 과도한 감모 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존재함.	수입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상업적 생산/상품 매출 개시일(개업일)	판매용 제품 생산/상품 매출 개시일 매출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일	제조회사의 경우, 건설중인 자산의 본 계정 대체 개시일 및 상각 개시일. 주의: 단가 3천만 동이하 구입 소모성자산은 3년 이내 정액상각함 (유형자산 아님). 부가세 법상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 중요함(하기 주 참조). 일반 서비스업종의 경우 첫 개업일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개시일.	유형자산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및 구축물 • 설비 및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운반설비 • 관리목적의 설비 및 도구 • 수목 및 생물자산 • 기타유형자산
세무조사 대응을 위한 숙지사항	설립 후 수시. 부가세 첫 환급 시 세무조사 발생, 관세 세무조사(수입자재 존재 시)	주기적 세무조사 주요 이슈사항 숙지 필요. ※ 업종마다 법인세, 부가세 등 세무 이슈사항은 다양합니다.	
자본금 납입기한 준수	ERC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 IRC에 명기된 달리 정한 기한도 가능.	매입 부가세환급 전제조건으로 자본금 납입 의무와 연결됨. 한국에서 신고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상 금액과 대조 필요함.	부가세환급 세무조사, 한국의 주거은행 신고사항과 연결됨.



○ **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 circular 39/2014**

- 계산서의 종류: 예컨대, VAT invoice, Sale invoice
- 계산서 양식의 상징번호(01GTKT3/001) 및 계산서의 발행연도, 일련번호
- 복사본/원본인지 구분 표시(Copy 1은 공급자 보관용, Copy2는 공급받는자 수령용)
- 계산서의 발행 일련번호는 7자리로 구성됨
- 공급하는자의 명칭, 주소, tax code
- 공급받는 재화서비스의 명칭, 단위, 수량, 단가, 총액의 숫자표기, 총액의 문자 표기
-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의 성명, 공급하는자의 전자서명날인, 발행날짜
- 계산서 직접인쇄기관의 성명, 자가인쇄소프트웨어 제공기관의 성명,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구축업체명
- 세금계산서는 베트남어로 발행되어야 함. 외국어 병기시 괄호안에 기입하여 오른쪽 또는 오른쪽 하단에 병기할 수 있으나, 그 크기는 베트남어보다 작게 구분되어야 함.

○ **부가세납부방식 중 공제방식(Deduction method)**

- 부가세 납부세액 =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매출 부가세의 산출
 - 매출 부가세는 과세표준에 적합한 세율(일반 공산품은 10%)을 곱하여 산출함.
- 매입 부가세의 공제
 - 국내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입 부가세를 처리함. 수입부가세의 경우 관세납부일 기준으로 수입부가세의 공제금액을 결정함. 매입 부가세 공제를 위해선 대금이 2천만 동 이상은 계좌이체 의무임.
 - 수입재화의 경우 관세 부과 과세표준에 수입관세와 특별소비세(해당할 경우), 환경보호세(해당할 경우)를 가산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산정 후 수입부가세(매입 부가세)를 부과함.
- 매입부가세의 현금환급
 - 매입부가세의 환급시기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음.
 - √ VND 3억동이상이고 개업준비중 발생매입부가세(즉시환급)
 - √ 매입부가세 VND 3억동이상인 해외나 무관세지역소재 구매자(EPE)에게 제공하는 수출기업, 해외임가 공용역, 상품수출기업으로서 해외매출액의 10%를 넘기지 않는 매입부가세 (즉, 매입세금계산서 매입부가세금액은 수출매출액의 10% 내에서만, 매입부가세 공제(즉시환급))
 - √ 환급대상인 매입부가세라도 자본금출자 미납상태시엔 환급불가

○ **부가세납부방식 중 직접법방식**

직접법은 공급대가만을 표시하고 매출자가 Sale Invoice(한국의 간이과세자 계산서 해당)를 발행하고 공급대가액에서 매출 부가가치세를 감액해서 수령한 대가를 매출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는 방식임. 매입 부가세의 환급/공제는 인정되지 않음. 적용 기업은 개인사업소득자, EPE 기업(세율은 0%이나, Sale invoice를 발행함)이 대표적임. <끝>



베트남 노동법상 징계 절차

법무법인 아세안 최지웅 변호사
jchoi@alfcounsel.com

근무태만 및 업무상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직원의 해고 조치와 관련하여 베트남 법상 절차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근무태만이 감지되는 경우, 통상 계약직을 거쳐서 통상 '무기계약직' 또는 편의상 정규직으로 칭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유형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의 경우, 회사측에서 근무태만을 사유로 직원을 해고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측의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의 적법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바, 본 칼럼에서는 베트남 노동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 (이하 '해당 직원')의 해고를 위한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베트남 노동법 제38조에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근로자가 자주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2. 근로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때에는 12월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근로능력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화재, 법률 규정에 따른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복구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생산을 줄이고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4. 동 법 제33조에 규정된 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근로자가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즉,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을 위해서는 상기 해고의 사유 중 '근로 계약에 따른 빈번한 직무 미완성'을 근거로 하는 해고 방식이 고려될 수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평소 해당 직원의 직무 미완성에 관한 근거, 징계 내역 및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최종 해고 처분을 고려하여야 하며, 만약 불충분한 근거 및 징계 자료 하에 일방적인 해고 처분을 내릴 경우, 해당 직원은 관할 노무당국에 대한 고발 및 부당 해고로 인한 법원 제소 등 개연성이 있는 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해당 직원의 평소 직무 미완성을 사유로 하는 해고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실질적인 절차 및 준비가 순차적으로 요망된다.



첫번째 절차 : 견책

해당 직원은 근무 시간 중 본인의 직무에 있어 특별한 사유없이 비정상적인 실수 등 업무와 관련한 미완성 또는 실수가 발생할 시 반드시 정식 징계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징계 결정 시 별도의 징계위원회 소집하여 징계 회의를 거쳐야 하며,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 (이하 “징계위원회절차”) 을 유념하여 기록에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해당 직원의 실수 또는 잘못에 대한 입증 (또는 본인 또는 관련자가 이를 인정하거나, 입증하는 서류)
- 징계위원회 소집 시 반드시 사내 일선 근로자급의 각 부서 직원들 (또는 이 들을 대표하는 일선 근로자급의 대표직원들)이 참석해야 함.
- 해당 직원은 본인의 항변권 행사를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원할 경우 본인의 개인 변호사를 대동 하에 참석이 가능함.
- 징계위원회 회의록 (유첨 파일로 회의록 양식 첨부)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참석인 전원 서명을 득하여야 함.
- 징계위원회 결정문 (유첨 파일로 견책 결정문 양식 첨부)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체결당사자간 체결되어야 함.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위와 같이 소집하되, 만약 참석인 중 일부가 회의록 또는 결정문상 서명을 거부할 시, 거부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징계위원회 소집을 통한 징계(견책)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직원이 동일한 유형의 업무 미완성 행위가 없을 시에는 해당 징계 조치는 소멸된다.

즉, 최초 징계(견책) 처분 후 3개월 이내에 동일 유형의 업무 미완성 행위가 없을 시에는 최초 징계는 소멸되며, 3개월 이후 해당 직원이 동일 유형의 업무 미완성행위가 재발생할 시에는 위와 같은 징계(견책) 조치를 최초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절차 : 급여인상 최소구간의 연장

최초 징계(견책) 조치가 있는 후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직원이 동일한 유형의 업무 미완성 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인상 구간의 연장 (예컨대, 통상 1년 또는 2년 단위로 급여 인상 협의를 하는 경우, 이를 2년 또는 4년으로 연장시키는 징계 조치를 의미)을 골자로 하는 징계 결정(유첨 파일로 급여인상 구간 연장 결정문 양식 첨부) 고려가 가능하며, 이를 위한 징계 절차는 위 견책 절차 및 요건과 동일하게 준비되어 자료를 토대로한 관련 징계위원회 기록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징계위원회 소집을 통한 징계(급여인상 구간 연장)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직원이 동일한 유형의 업무 미완성 행위가 없을 시에는 해당 징계 조치는 소멸되며, 6개월 이후 해당 직원이 동일 유형의 업무 미완성 행위 재발 시에는 위와 같은 징계조치를 최초(견책)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세번째 절차 : 해고

급여인상 최소구간 연장의 징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직원의 동일 유형의 업무 미완성 행위 재발 시에는 ‘해고’ 처분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징계위원회 절차를 동일하게 거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을 위해서는 상기와 같이 최소 3단계에 걸친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직원의 동일 유형의 업무 미완성 행위가 3개월 이내에 최소 2회 이상 발생되어야 하며, 2회차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 유형의 미완성 행위가 재발생되어야 하며, 각 회차 발생 시 징계위원회 절차에 따른 기록 수집이 요망된다.

상기와 같은 3단계에 걸친 징계를 거친 해고의 방식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중간 징계 절차를 생략 하에 곧바로 해고 처분으로 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

- 절도, 횡령, 도박, 고의적인 상해 행위, 업무 공간에서 마약 투약 행위
-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영업기밀 또는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
- 회사의 자산에 중한 손해를 끼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
- 1개월 중 총 5일 이상 무단 결근 또는 1년중 20일 이상 무단 결근 시

위와 같이 모든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준비하여 해고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도 해당 직원이 베트남 노무 당국 및 법원에 제소할 개연성이 있는 바, 베트남 내 실무상 위와 같이 사실상 ‘정규직’ 직원의 사용자 일방 해고는 매우 어려운 바, 회사 입장에서는 관련 증거 자료 수집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실무상 가장 많이 통용되는 정규직 직원의 근로 계약 해지는 상호합의 (근로계약해지합의서)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주를 이루고 있는 점 유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베트남 노동법 위반 하에 임의 해고 시 당국 처벌 개연성에 유의하여야 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권리 보호 및 주장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사안별 적합한 대응을 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법무법인 아세안) <끝>



이 또한 지나가리라

로투비Law2B | 대표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ceo@law2b.kr | +84(0)90 438 7074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메리엄-웹스터 영어 사전에도 코로나 사태로 만들어진 'physical distancing 거리 두기', 'self-isolate 자가 격리', 'WFH (Working From Home) 재택근무' 등 여러 개의 새로운 단어들도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자가 격리, 재택근무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중 '새들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지은 집은 강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겠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지은 집은 약한 바람에도 허물어져 버릴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떠오릅니다.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우리는 더 강해지리라 믿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업무를 하며 겪은 몇 가지 에피소드를 공유합니다.

1. 그 시간, 그 자리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꼭 서명해야 한다고 하니 우선 서명 페이지만 로펌 종이에 출력해서 가져와 주세요.” 베트남에서 식품 가공을 하고자 하는 한국 의뢰인과 베트남 파트너 간의 합작계약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임한 다음 날, 이틀 뒤에 계약 체결식을 해야 한다며 의뢰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베트남 파트너가 이틀 뒤 오전 8시 56분에 본인 회의실에서 계약 체결을 해야 사업이 잘된다고 날을 받았다고 한다. 당사자들이 아직 계약 조건에 대해 합의도 하지 않았고, 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체결식을 한다고 하니 좀 황당했다. 택일을 믿어서가 아니라 좋은 게 좋다는 의뢰인의 요청에, 우선 계약 체결식부터 하고 나중에 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하였다.

미리 목적지를 구글 지도에서 확인해보니 필자의 사무실에서 차로 30분 정도 걸린다고 나왔다. 서명 페이지만 출력해서 당일에는 1시간 일찍 출발했지만, 출근 시간 정체에, 기사도 처음 가보는 길이라 목적지 근처에서 계속 같은 장소를 맴돌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8시 45분이었다. 식은땀이 났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간신히 계약 체결식 장소에 도착하니 8시 52분이었다. 거기에서도 특정 자리에서 서명해야 한다며 자리를 미리 배치해 둔 상태였다. 정확히 8시 56분에 당사자들이 계약서도 없는 서명 페이지에 서명하고 사진을 찍고 나니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사업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당사자들이 계약 조건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합작 사업은 결렬되었다.



2. 베트남과 귀신, 그리고 법

베트남은 오랜 전쟁 동안 많은 사람이 죽어서인지 유난히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 법인을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이 주소 변경을 위해 다시 찾아왔다. 이유를 물어보니 밤마다 귀신을 봐서 잠을 못 자고 너무 무섭다고 한다. 건장한 남자 두 명이 타운하우스의 1층은 거실 겸 사무실로 쓰고, 2층과 3층은 숙소로 쓰고 있었는데 1층에서 귀신을 본다는 것이다. 알아보니, 몇 개월 전에 그 집 1층에서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뒤 바로 집을 나와 호텔에서 생활하며 사무실을 이전했다고 한다.

이 집을 소개해준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부동산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굳이 알려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법적으로 임대인이나 부동산이 자살이나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없었다는 임대인의 진술 및 보증 조항을 포함하면 향후 분쟁 시 유리할 것이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는 바로는 최근 0년 동안…” 등을 추가하는 것이 무한 책임을 피하고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주거지 한 가운데 있는 공동묘지, 논밭 한가운데의 무덤, 그리고 아파트 단지마다 커다란 무쇠 향로에 종이로 만든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태우며 화방(Hóa Vàng) 제사를 지내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돌아가신 조상의 영혼과 가까이하는 문화 때문에 부동산 개발 시 묘지의 이장은 매우 어렵다. 실제 공동묘지를 이장하고 그 자리에 상가와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분양할 때 약속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아파트 시공사와 입주자 간의 법적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관련 계약서에 “0년 0월 0일까지 공동묘지를 이장하기로 한다. 만약 이장되지 않을 경우…” 등의 특약 사항을 포함한다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부자라서 믿는다? - 부동산, 특히 주의하세요

박OO 씨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받은 퇴직금으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 녹쫁 씨(가명)와 함께 상업 빌딩을 매수하여 임대 사업을 하기로 했다. 녹쫁 씨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전쟁 때 공을 세운 장군이라서 특별히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를 자손 대대로 영구 소유하고 있고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했다. 그의 집에 방문해보니 전쟁 때 활약한 할아버지의 유품이 집안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고,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을 정도로 부유했다.



박OO 씨는 이 사업과 관련된 토지 거래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으러 오셨는데, 필자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래여서 진행하지 마시라고 여러 차례 말렸었다. 몇 달간 박OO에게 연락이 없어 궁금하던 차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다. 박OO 씨는 면목이 없어 연락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돈을 쌓아 놓고 사는 자신이 그런 풍돈에 욕심을 부릴 사람으로 보이냐는 녹쫘 씨의 말에 속아 토지 거래의 보증금으로 거액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그 사업의 진행은 불가능했고, 그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베트남에서 퇴직금의 반을 날리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녹쫘 씨를 형사 처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겠냐고 묻는 분노와 실망이 섞인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한국과 달리 베트남의 토지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국가의 소유이다. 이를 잘 모르는 한국인들 간에 토지“사용권”을 가진 사람을 땅 주인으로 부르고, 토지사용권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땅을 산다”라고 표현하면서, 소유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다.

현 부동산사업법(66/2014/QH13)상 이미 완공된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업을 하는 것은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사업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이미 완공된 건물에 대한 임대 사업은, 건물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후 그 건물을 임대하거나, 건물 전체를 임대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 또는 실무적으로 이러한 임대업 허가를 받은 기업의 지분 인수, 프로젝트 인수, 자산 인수 등 다양한 인수(M&A) 방법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개인의 불규칙한 소규모 거래 등 소규모 부동산의 판매, 거래, 임대사업 분야는 제외하고,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억 동(한화 약 9억8천만 원)의 법정 자본금을 가진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특히 기존 부동산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피인수 기업이나 임대인이 부동산사업법에 맞게 법정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고, 오히려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고 힘들 때 절망하지 않는 한 마디,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기억하고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끝>



베트남 중부 유망 투자지역 안내 - 꽝남성

□ 꽝남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10,438km² ▪ 인구: 1,495,812 명('19년) ▪ 도시거주 비율: 25,36%
지정학적 위치	북쪽으로는 다낭(Da Nang)성과 투아티엔후에(Thua Thien Hue)성, 남쪽으로는 꽝응아이(Quang Ngai) 및 꼰똌(Kon Tum)성, 동쪽으로는 남중국해, 서쪽으로는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과 인접해 있음
접근성	꽝남성은 수도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860km, 호치민시에서 북쪽으로 865km 떨어져 있음
GRDP 성장률 / 1인당 G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3.81% 성장('19년) ▪ 성 1인당 GDP: USD 2,833, 전년대비: 6.45% 성장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수출액: USD 1,145백만 달러 / 총수입액: USD 2,015백만 달러('19년) ▪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3.01%), 서비스업(5.09%), 농수산업(1.7%)
산업구조	▪ 공업/건설업 33.96 %, 서비스업 34.56%, 농수산업: 12.62%
노무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내 노동가능 인구: 62.86% ('17년) ▪ 노동 가능인구 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62%('19년) ▪ 직업교육 이수자 중 자격증 보유비율: 28%('19년)
최저임금('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i An시, Tam Ky시: VND 3,920,000=USD168 (2급지) ▪ Dien Ban 타운, Dai Loc, Duy Xuyen, Nui Thanh, Que Son, Thang Binh, Phu Ninh 현: VND3,430,000=USD147 (3급지) ▪ Tay Giang, Dong Giang, Nam Giang, Phuoc Son, Hiep Duc, Tien Phuoc, Bac Tra My, Nam Tra My, Nui Thanh, Nong Son 현: VND3,070,000=USD132 (4급지)
외국인투자 ('19.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꽝남성 투자 총 외국인투자는 188개 프로젝트, USD 59억 달러 ▪ (한국) 54개 프로젝트 총 USD 5억 달러로 꽝남성에 투자하는 국가 중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음

□ 투자환경

○ 뛰어난 접근성 및 물류인프라

- (도로) 꽝남성은 남북 종단철도 노선상에 있으며, 1A 국도, 14번 국도(다낭에서 꼰똌까지 연결), 다낭-꽝남-꽝응아이 고속도로, 다낭-호이안(Hoi An)-추라이(Chu Lai) 해안 도로, 동서 경제 회랑 중 일부인 중부 고원 국도, 라오스 남부 및 태국 북동부와 연결되는 루트는 전국 및 지역적으로 모든 지방과의 원활한 교통을 보장함.



- (수로) 광남성은 총 941km의 하천이 있으며 11개의 주요 하천 중 307km (32.62%)가 넘는 거리를 수로를 통한 교통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 투본(Thu Bon)강과 쯤영장(Trung Giang)강을 포함한 주요 하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5 - 10톤 규모의 선박들이 20 - 50km 거리 내에서 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항만) 추라이-끼하(Ky Ha) 포트 클러스터:
 - + 끼하 항은 7,000 - 20,000톤 규모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음. 또한 1,000 - 3,000톤 규모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석유 및 가스 전용 부두도 있음.
 - + 탐히엵(Tam Hiep) 항구는 추라이 및 누이타잉(Nui Thanh) 경제 구역에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부두가 있는 항구이며, 10,000 - 20,000톤 규모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음.



○ 관광 및 자연 조건

- 관광 : 꽝남성의 문화유산 및 역사적 전통과 결합된 자연자원은 매우 소중한 관광 산업의 발전요 인임. 꽝남성은 125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디엔 반(Dien Ban), 호이안, 팜기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변이 많이 있음. 환경이 오염되지 않아 경사가 낮고 염도가 적당하며 푸른 바닷물과 해양 기후는 관광 개발에 이상적임. 또한 유네스코는 호이안 고도와 미선 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 으로 인정하였으며, 주변지역에 많은 역사 및 문화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음.



- 광물 자원 : 꽝남성의 광물 자원은 개발 잠재력이 높으며 다양하고 풍부한 유형으로 경제적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특히,
 - + 농선(Nong Son)의 석탄은 약 천만 톤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 50,000 톤 채굴 이 가능함.
 - + 산업용 백사장은 주로 탕빈(Thang Binh) 및 누이타잉현에 매장량이 많음.
 - + 메탄 가스, 우라늄, 시멘트 원료(석회석)와 같은 광물은 중남부 지방중에 가장 풍부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화강암, 점토, 주석 및 건축 자재용 암석 등과 같은 광물이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음.

- 토지 자원: 꽝남성은 해안 사구 및 해안 모래 토양, 강 충적 토양, 해양 충적 토양, 퇴색 된 회색 토 양, 적황색 토양, 계곡 토양 및 분해 된 불활성 자갈 토양 등 9가지 토양 유형으로 구성됨. 강을 따 라 펼쳐져있는 충적토는 식량 및 단기 작물의 생육에 가장 적합한 토양 그룹중의 하나임. 산간 지 역의 적황색 토양 그룹은 조림, 공업용 수목 및 다년생 과일 나무 조림에 유리함. 연안 모래 토양 그룹은 양식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 인센티브 정책 지원

구분	투자지역, 분야	법인세/수입세/토지세	감면, 면제 기간
일반 공단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 투자 시 (Dong Giang, Tay Giang, Nam Giang, Phuoc Son, Bac Tra My, Nam Tra My, Hiep Duc, Tien Phuoc, Nui Thanh 현, Cu Lao Cham섬 등)	표준세율 15년 간 10%	최초 4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투자 시 (Dai Loc, Duy Xuyen 현 등)	표준세율 10년 간 17%	최초 2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
	일반 사회경제지역 투자 시	기본세율 20%	
공통	고정자산 투자용 설비, 기계수입 시	수입세 면제	
	수출용 재화 생산용 원부자재 수입 시	수입세 면제	5년 간
	일반공단, 경제특구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투자할 시	신용 대출 우대 적용	

□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 광남성 인민위원회의 2019년 사회 경제 상황 및 2020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까지 외국인투자는 총 188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USD 59억 달러가 투자등록 되어있음.

○ 한국계 투자

- 한국은 54개 프로젝트로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투자자본금은 USD 5억 달러 이상임. 한국의 주요 프로젝트는 효성 그룹, 판코 그룹이 있음.



○ 광남성의 공단 내 10대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액 (달러)
1	Uni-President Vietnam Co., Ltd	밀가루, 라면, 쌀당면, 동물 사료 및 해산물 생산	타이완	140,000,000
2	VBL-Quang Nam Co., Ltd	맥주 생산 및 유통	네덜란드	72,280,000
3	Panko Tam Thang Co., Ltd	의류, 직조, 염색 및 섬유 액세서리	한국	70,000,000
4	Suntory Pepsico Vietnam Co., Ltd branch in Central Vietnam	식수, 청량음료 생산	일본	56,000,000
5	HANACANS Joint Stock Company branch in Quang Nam	알루미늄 음료의 캔 생산	일본	45,000,000
6	RIEKER Vietnam Ltd	도구, 예비 부품, 신발 생산 용 원자재 제조	독일	42,400,000
7	Lixil Vietnam Co., Ltd	수도꼭지 및 욕실 용품 제조	일본	37,600,000
8	Makitech Vietnam Co., Ltd	기계 장비, 운송 팔레트 제조	일본	9,000,000
9	Germton Industrial Co., Ltd - Garment factory for export	의류 액세서리, 아동 의류, 성인 의류, 운동복, 일상복 제조 및 인쇄	홍콩	8,000,000
10	HYDRA Co., Ltd	가정용, 모터, 펌프 및 팬을위한 보호 코팅이 있거나없는 커패시터 생산	체코 공화국	7,000,000



□ 공단현황

○ 주요 공단 정보

순번	공단명	설립년도	주요정보	투자자
1	East Que Son	2013년	· 총면적: 211.26ha · 토지임대료: USD 0.75/㎡/년 · 관리비: USD 0.2/㎡/년 · 입주율: 35%	An Thinh Quang Nam Joint Stock Company
2	North Chu Lai	2004년	· 총면적: 361.4ha · 토지임대료: USD 5/㎡/50년 · 관리비: USD 0.25/㎡/년 · 입주율: 50%	CIZIDCO Joint Stock Company
3	Dien Nam-Dien Ngoc	1996년	· 총면적: 416ha · 토지임대료: USD 5/㎡/30년 · 관리비: USD 0.35/㎡/년 · 입주율: 95%	Quang Nam-Da Nang Urban & Industrial Zone Development Joint Stock Company
4	Thuan Yen	2004년	· 총면적: 230ha · 토지임대료: USD 0.35/㎡/년	Tam Ky City People's Committee
5	Tam Hiep	2004년	· 총면적: 580ha · 토지임대료: USD 0.5/㎡/년 · 관리비: USD 0.25/㎡/년	Infrastructure Development Center (under Chu Lai Open Economic Zone Authority)
6	Tam Thang	2004년	· 총면적: 197.1ha · 토지임대료: USD 0.6/㎡/년 · 관리비: USD 0.25/㎡/년	CIZIDCO Joint Stock Company
7	Chu Lai Truong Hai Automobile & Mechanical	2003년	· 총면적: 243ha · 특징: 주로 자동차 조립 및 지원 산업 프로젝트 (KIA 자동차, 현대 버스, MAZDA 자동차)	The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Industrial Zone and Urban Infrastructure of Chu Lai Truong Hai Co., Ltd





□ 투자 유망분야

꽝남성은 다음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를 우선시함 :

1. 제조, 가공 산업
2. 농업, 임업 및 수산물 가공업
3. 건축 자재
4. 과일 재배 및 가공, 농작물 대상 첨단 농업
5. 가축 및 가금류 사육 및 가공
6. 공단 건설 및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 (특히 한국, 일본 파트너를 위한 공단 및 산업 클러스터)
7. 공항 및 항구 인프라, 도시 교통 인프라

□ 꽝남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꽝남성 투자 촉진 및 기업 지원 센터	Mr. Vo Van Hung (국장)	Tel: +84-985-007-199 Email: hungchulai@gmail.com
추라이 오픈 경제 관리위원회	Mr. Pham An (부국장)	Tel: +84-905-059-077 Email: phamanktm@gmail.com Website: http://chulai.quangnam.gov.vn
꽝남성 공단 관리위원회	Mr. Hung (기획 및 투자실장)	Tel: +84-235-381-2629 Email: hungbqlqn@gmail.com



대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01. 01~2020. 10. 20 기준 누계		2020. 01. 01 ~ 10.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8,934	70,384	528	1,101	3,422
일본	4,610	59,896	226	472	1,783
싱가포르	2,588	55,723	197	5,381	7,507
대만	2,774	33,324	102	935	1,420
버진아일랜드(영)	864	22,175	24	256	799
홍콩	1,918	25,001	179	909	1,374
중국	3,087	18,129	294	1,341	2,169
말레이시아	642	12,806	27	58	188
태국	591	12,503	29	192	1,710
네덜란드	369	10,498	27	205	806
미국	1,065	9,392	78	70	235
전체 합계	32,777	379,920	2,100	11,661	23,481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2020. 10. 20 기준 누계		2020. 01. 01 ~ 10.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042	223,620	653	5,122	10,740
2	부동산경영	934	59,878	63	714	3,460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47	28,368	15	4,799	4,816
4	호텔, 외식서비스	889	12,475	51	64	280
5	건설	1,749	10,681	71	233	549
6	도소매, 유지보수	5,103	8,393	598	379	1,384
7	물류운수	866	5,219	47	54	467
8	채광	108	4,898	1	0.41	6
9	교육, 양성	574	4,403	48	16	91
10	정보통신	2,309	3,947	181	33	228
11	농, 임, 수산	501	3,662	9	91	183
12	예술 오락	140	3,393	5	3	5
13	기술과학전문	3,478	3,626	293	124	900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79	2,865	3	6	30
15	의료와 사회복지	155	1,991	8	4	21
16	행정, 지원 서비스	476	990	45	17	33
17	기타서비스	144	810	3	0.42	5
18	금융, 은행, 보험	77	753	6	0.29	282
19	기타산업					
	합계	32,777	379,980	2,100	11,661	23,481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2017	2018	2019	2020.10
수 출	2,137.70	2,447.20	2,634.50	2,292.7
수 입	2,111.00	2,375.10	2,535.00	2,105.5
무역수지	26.7	72.1	99.5	187.2

자료원: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7	2018	2019	2020.10
각종 전화기 및 부품	45,085	50,003	51,827	42,038
섬유/직물제품	25,928	30,447	32,571	24,763
전기전자제품/부품	25,882	29,446	35,591	36,197
기계/플랜트 및 부품	12,785	16,528	18,304	20,991
신발류	14,637	16,297	18,299	13,380
수산물	8,353	8,831	8,572	6,875
목제품	7,604	8,855	10,526	9,640
수송수단 및 부품	6,967	7,985	8,500	7,279
철강제품	3,100	4,558	4,160	2,486
채소	3,517	3,822	3,764	2,721
기 타	59,912	67,951	71,337	62,902
합 계	213,770	244,723	263,451	229,272

자료원: General Statistics Office / 2018년 순위기준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7	2018	2019	2020.10
전자제품 및 컴퓨터	33,638	42,501	51,550	51,280
기계/플랜트 및 부품	37,501	33,715	36,640	29,767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6,182	16,010	14,666	12,635
의류(원단)	11,446	12,914	13,329	9,531
철강제품	9,100	9,896	9,485	3,666
플라스틱 원료	7,355	9,097	9,012	6,701
유류제품	7,006	7,614	1,047	905
기타 금속	5,445	7,317	6,407	4,845
플라스틱 제품	5,408	5,906	6,526	5,876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5,464	5,741	5,886	4,367
기 타	72,551	86,801	98.96	80,977
합 계	211,096	237,512	253,508	210,550

자료원: General Statistics Office / 2018년 순위기준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6	2017	2018	2019	2020.10
1	미국	38,464	41,608	47,526	61,347	62,364
2	중국	21,970	35,463	41,268	41,414	37,946
3	일본	14,677	16,841	18,851	20,413	15,739
4	한국	11,419	14,823	18,205	19,720	16,096
5	홍콩	6,091	7,583	7,955	7,156	8,395
6	네덜란드	6,014	7,106	7,076	6,881	5,700
7	독일	5,959	6,364	6,869	6,555	5,527
8	인도	2,688	3,756	6,542	6,674	4,339
9	영국	4,899	5,424	5,776	5,758	4,136
10	태국	3,693	4,786	5,494	5,272	4,057
	기타	60,068	77,115	79,161	82,999	65,495
	합계	175,942	213,770	244,723	264,189	229,794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 2018년 순위 기준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6	2017	2018	2019	2020.10
1	중국	49,930	58,229	65,438	75,452	65,615
2	한국	32,034	46,734	47,497	46,935	37,471
3	일본	15,034	16,592	19,011	19,526	16,552
4	대만	11,221	12,707	13,228	15,173	13,528
5	미국	8,708	9,203	12,753	14,365	11,429
6	태국	8,796	10,495	12,023	11,656	8,776
7	말레이시아	5,114	5,860	7,450	7,291	5,427
8	인도네시아	2,971	3,640	4,918	5,703	4,273
9	싱가포르	4,709	5,301	4,524	4,091	3,026
10	인도	2,746	3,940	4,147	4,538	3,687
	기타	31,999	38,395	46,523	48,341	40,515
	합계	173,262	211,096	237,512	253,071	210,299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 2018년 순위 기준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09
수출	32,651(17.6)	47,749(46.3)	48,629(1.8)	48,178(-0.9)	34,269(-4.9)
수입	12,495(27.4)	16,176(29.5)	19,632(21.4)	21,071(7.3)	15,640(-2.0)
무역수지	20,156	31,573	28,997	27,107	18,629

자료원: KITA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6	2017	2018	2019	2020.09
반도체	4,574(59.3)	9,235(101.9)	10,939(18.5)	10,730(-1.9)	8,537(-0.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512(98.4)	7,367(193.0)	8,909(20.9)	7,970(-10.5)	5,818(1.1)
무선통신기기	5,192(22.2)	3,286(-36.7)	2,632(-19.9)	2,933(11.4)	2,648(20.5)
기구부품	1,722(39.6)	2,612(57.7)	2,332(-10.8)	2,230(-4.4)	1,619(-4.8)
석유제품	1,088(231.2)	1,978(81.0)	1,980(-0.4)	2,194(11.0)	886(-35.6)
합성수지	1,203(8.4)	1,442(19.8)	1,659(15.1)	1,624(-2.1)	1,140(-6.4)
플라스틱 제품	864(16.9)	1,152(54.9)	1,205(4.6)	1,210(0.4)	837(-9.3)
편직물	1,077(10.3)	1,118(3.8)	1,106(-1.0)	996(-10.0)	592(-17.4)
철강판	820(-2.3)	985(20.1)	1,049(6.5)	1,158(10.4)	797(-8.5)
광학기기	437(56.4)	794(81.7)	944(18.9)	946(0.2)	722(-3.7)
기타	12,676	18,808	15,874	16,187	10,673
합계	32,651(17.6)	47,749(46.3)	48,629	48,178(-0.9)	34,269(-4.9)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2018년 순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6	2017	2018	2019	2020.09
무선통신기기	3,145(113.9)	3,964(26.0)	4,835(21.4)	5,691(17.6)	4,081(-5.8)
의류	2,426(9.2)	2,874(17.4)	3,570(24.2)	3,646(2.1)	2,416(-14.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56(-57.4)	604(976.6)	1,137(88.3)	1,197(5.2)	824(-17.4)
신변잡화	642(19.2)	797(24.2)	980(23.1)	1,053(7.4)	803(1.3)
목재류	428(23.1)	511(19.4)	793(55.1)	657(-17.1)	464(-7.7)
컴퓨터	552(38.0)	560(1.4)	534(-4.6)	679(25.9)	847(66.0)
기구부품	268(30.7)	496(89.9)	445(-10.4)	512(15.1)	343(-2.9)
산업용 전기기기	287(28.8)	317(10.3)	416(31.1)	479(14.8)	410(14.5)
반도체	123(10.5)	374(203.7)	396(5.8)	471(19.1)	445(29.9)
영상기기	340(126.7)	400(17.7)	329(25.6)	356(-2.0)	298(10.0)
기타	4,066	5,279	6,197	6,330	4,709
합계	12,495(27.4)	16,176(29.5)	19,632(21.4)	21,071(7.3)	15,640(-2.0)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2018년 순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19~2020년 주요 경제지표 >

구분	시기	단위	국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19년(연간)	%	0.7	5.9	4.3	5.0	7.0	
	2020년 2Q	%	-12.6	-16.5	-17.1	-5.3	0.3	
	2020년 3Q	%	-5.8	-11.5	-2.7	-3.4	2.6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19년(연간)	-	100	N/A	114.6	148.6	9.1
		2020년 9월	-	125.9	-14.8	115.3	N/A	3.8
		2020년 10월	-	N/A	-13.8	N/A	N/A	5.4
	구매관리지수 (PMI)	2019년(연간)	-	N/A	51.6	105.2	50.1	N/A
		2020년 9월	-	50.3	50.1	101.2	47.2	52.2
		2020년 10월	-	50.5	48.5	N/A	47.8	51.8
소비	소매동향지수	2019년(연간)	-	100	N/A	86.2	124.3	N/A
		2020년 9월	-	100.1	N/A	91.5	83.4	N/A
		2020년 10월	-	99.7	N/A	N/A	79	N/A
	소매판매	2019년(연간)	-	N/A	N/A	139.5	228.1	11.8
		2020년 9월	-	82.4	N/A	134.9	196.7	4.9
		2020년 10월	-	N/A	N/A	N/A	194.1	6.1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19년(연간)	%	1.0	2.5	0.7	3.0	2.79
		2020년 9월	%	-0.1	2.3	-1.4	1.4	2.9
		2020년 10월	%	-0.2	2.5	N/A	1.4	2.4
투자	고정자산투자	2019년(연간)	%	1.0	N/A	1.4	4.4	N/A
		2020년 2Q	%	N/A	N/A	1.4	-2.7	N/A
		2020년 3Q	%	N/A	N/A	N/A	-6.4	N/A
고용	실업률	2019년(연간)	%	2.3	5.1	3.3	4.6	1.9
		2020년 2Q	%	N/A	17.7	4.6	4.9	2.7
		2020년 3Q	%	N/A	10.0	N/A	7.0	2.5
무역	수출증가율	2019년(연간)	%	-4.2	1.5	-1.7	-7.3	8.1
		2020년 9월	%	-2.1	-2.2	13.6	-0.5	16.3
		2020년 10월	%	-8.6	N/A	N/A	-3.2	9.9
	수입증가율	2019년(연간)	%	-2.1	-4.8	-3.5	-9.3	7
		2020년 9월	%	-1.6	-16.5	-3.6	-18.8	11.6
		2020년 10월	%	-9.3	N/A	N/A	-26.9	10.1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 전망치는 *표기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 2021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개최 안내 “세계시장 Reset, 한국무역 Restart”

- 행사명: 2021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 일자: ① (설명회) 2020.12.1.(화) 14:30~17:30
② (온라인 컨설팅 워크) 2020.12.2.(수)~4.(금) 10:00~17:00
- 웹사이트: www.2021globalmarket.com
- 주최 /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 프로그램

시 간	행사내용	비 고	
14:30-14:35	개회식	권평오 KOTRA 사장	
14:35-16:30 (1부)	<세션1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사회자 : 문건영 아리랑TV 앵커	발표연사	토론참가자
	주제 ① 코로나 신인류가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부회장	북미지역본부장 유럽지역본부장 일본지역본부장
	주제 ② 미-중 패권경쟁이 불러온 글로벌 통상전쟁	안덕근 서울대 교수	북미지역본부장 중국지역본부장
	주제 ③ 다시 쓰는 글로벌 가치사슬 (GVC) 전략	허대식 연세대 교수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 서남아지역본부장 중남미지역본부장 중국지역본부장
	주제 ④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갈 유망산업과 기회	정은미 KIET 본부장	중동지역본부장 아프리카지역본부장 CIS지역본부장 유럽지역본부장
16:30-17:30 (2부)	<세션2 : 기업이 묻고 KOTRA가 답한다> 좌장 : 홍석우 세계로포럼 회장	기업 사전질문 및 실시간 질의 응답	
	기업이 묻고 KOTRA가 답한다 기업·현장 질의응답	김태호 KOTRA 중소기업본부장 문광수 KOTRA 수출전문위원 송호근 와이지원 회장 해외지역본부장(온라인)	

* 행사종료 후 해당영상은 KOTRA 유튜브 (KOTRA 비즈니스) 게재 및 대외공개 예정



한-베트남 투자협력 웨비나

'20.12.2(수), 10:00~12:00

유튜브(KOTRA 비즈니스)생중계

진행사항

시간*	내용	연사
10:00-10:10	행사소개	사회자(VIETRADE)
10:10-10:20	개회사	부 바 푸 청장 (VIETRADE)
10:20-10:30	환영사	이종섭 본부장 (KOTRA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10:45-11:00	한국기업 투자동향	김경돈 팀장 (KOTRA 하노이무역관)
10:30-10:45	디지털 경제시대 FTA 혜택과 활용방안	Mr. Do Quoc Hung 부국장 (베트남 산업무역부)
11:00-11:15	코로나 위기속 양국 투자협력방안	팜 깃 두언 상무관 (주한베트남대사관)
11:15-11:30	빈푹 투자환경 소개	팜 광 탕 부국장 (빈푹 기획투자부)
11:30-11:45	다낭 투자환경 소개	후엔 티 리엔 프영 원장 (다낭 투자진흥원)
11:45-12:30	Q&A 및 폐회	최동철 팀장 (베트남 코리아 데스크)

참고사항

동시동역 (한-베트남)제공

문의 : KOTRA 신남방 중동팀 한송옥 대리 (7666)



□ VIMEXPO 2020 개최 안내 (베트남 제조업 및 지원산업 국제전시회 Vietnam International Supporting Industry & Manufacturing Exhibition)

- 주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Industry Agency(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C.I.S Vietnam Advertising & Exhibition JSC
- 전시분야: 섬유 및 의류 산업, 신발 산업, 전자 산업, 자동차 제조 및
조립 산업, 기계 산업, 첨단기술 산업
- 기간: 2020년 12월 9일(수)-11일(금)
- 장소: Hanoi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 I.C.E Hanoi
(No.91 Tran Hung Dao Street, Hoan Kiem Dist., Hanoi)
- 웹사이트: <https://www.vimexpo.com.vn>
- 문의처:
 - Vietnam industry Agency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s. Thu Thao (E: thaoptt@moit.gov.vn / M: 0975351983)
Ms. Minh Thao (E: thaoptm@moit.gov.vn / M: 0912310782)



□ 주요기관별 베트남 특별입국 추진현황(11.27.기준) 및 연락처

1. 국내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 (문의) 이메일: btsc@kita.net, 대표전화: 1566-8110, 홈페이지: www.btsc.or.kr
-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1층 로비
- * 금년도의 경우, 베트남(하노이-번동공항)은 12.10(목) 추진예정

2. 베트남

* 주요기관별 단체입국 현황이며, 각 여행사를 통한 개별입국은 제외

□ 하노이

주관기관	입국예정일 및 신청기간	문의처	비고
하노이코참	[6차(12월) 실시여부는 미정]	이메일: support@korchamvietnam.com 대표전화: 024-3555-3341	www.korchamvietnam.com 코참회원사 대상(원칙)
하노이 중소기업연합	7차(12.16 수) → 11.30(월)까지 8차(12.30 수) → 12.14(월)까지 9차('21.1.13 수) → 12.25(금)까지 * 베트남 상황에 따라 지속추진	이메일: info@kbizhanoi.com 대표전화: (한국) 070-5111-2872 카톡ID: kbizhanoi1, kbizhanoi2, Kbizhanoi3	www.kbizvietnam.org 대사관 지원

□ 호치민

주관기관	입국예정일 및 신청기간	문의처	비고
호치민한인회	신청기간 11.26(월)-11.30(월) - 입국예정일 '21.1.21(토), 2.5(금)	이메일: hchiminh@korean.net 대표전화: 028-3920-1610 카톡ID: hcmhanin	www.koreanhcm.org 호치민총영사관 지원

□ 다낭

주관기관	입국예정일 및 신청기간	문의처	비고
다낭한인회	신청기간 11.9(월)-11.30(월) - 입국추진일 12.9(수)	이메일: phamthituyetnhung2003@gmail.com 대표전화: 076-254-3099 카톡오픈채팅방: https://open.kakao.com/o/gnRloRFc	https://cafe.naver.com/dananghanin 다낭 총영사관 지원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84 24-3946-0511 joara@kotra.or.kr < 저작권자 © KOTRA >